

윤석열 대통령, 반도체 투자협약식 및 웨이퍼·초순수 현장시찰

윤석열 대통령은 2. 1일 경북 구미 시 소재 SK실트론을 방문하여 투자협약식에 참석하고 반도체 및 초순수(ultra pure water) 생산시설을 시찰했다.

대통령은 투자협약식 격려사를 통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 일자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생산시설을 둘러본 대통령은 SK실트론에서 직접 생산한 웨이퍼에 '윤석열'이라고 서명하며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 했다.

대통령은 이후 SK실트론 내 초순수

수 실증플랜트를 방문해, 국산화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진을 격려했다.

반도체 생산에는 오염물질이 없는, 이론적인 순수한 물에 가장 가까운 초순수(ultra pure water)가 필수적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해 초순수를 만들어 왔다.

대통령은 "국가 간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글로벌 공급망도 블록화되고 있어 우리 반도체 산업의 핵심인 소·부·장 국산화가 시급하다"며, 국산 초순수 기술로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도약을 위해 직접 뒤통을, 기술 분야의 해외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웨이퍼 투자 협약식

경북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관련 영남권 갈등 중재나서

대구 및 부울경 시도지사에게 문자메시지, 별도 만남 통해 협의 제안

경상북도가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한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지역 갈등해결의 중재자로 나섰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일 아침 대구 및 부산·울산·경남 시도지사들에게 직접 문자 메시지를 보내 최근 대구경북신공항과 관련된 영남권의 갈등 양상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10일 전북도청에서 열리는 중앙·지방협력회의 후 별도 만남을 통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이 가시화되면서 부·울·경 지역에서는 대구경북신공항에 대한 견제가 심해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최인호(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구 갑)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의 대체공항 △중남부권의 중추공항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같은 표현과 △기타 대 양여 사업비 부족분 국고 지원 등의 내용을 특혜조항으로 지적하며 급기야 "TK신공항 특별법에 담긴 각종 특혜 조항의 수

정이나 삭제가 없으면 힘을 합쳐 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최인호 의원을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이해관계인'으로 공개비판 하면서 지역 간 갈등으로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는 이러한 갈등 양상이 대구경북신공항 뿐만 아니라 가덕도신공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방소멸의 위기는 비단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경북, 부·울·경 모두 각자의 산업 환경과 여건에 맞는 공항이 필요하며 두 공항이 모두 정부의 지원을 받아 충분한 규모로 건설되기 위해서는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우려 또한 사실과 다르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역시 당초 '남부권의 관문공항', '인천공항을 대체'와 같은 표현이 있었으나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바 있다.

법안의 일부 표현은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원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또한, 국고 지원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따르는 위험을 분산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고, 흑자라도 사업비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가덕도신공항과 같이 전액 국비로 건설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지원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종전부지 개발이 완료되는 2032년 이후로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과는 시기가 달라 정부의 재정여력 또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국방부-대구시 이전사업비 협의, 이전부지 선정 기준 결정, 군위군의 주민투표 결과 불복 등 대구경북신공항 추진 과정의 많은 갈등을 중재해온 '갈등해결전문가'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수도권 독과점을 깨고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지방의 단합이 필요하다"며, "부·울·경 시도지사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만나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 개최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제1호 사례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3일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약처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했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됐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능케하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됐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했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 구축은 건강한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인공지능 식단 서비스) 음식, 식재료, 필수 영양정보 등 데이터베이스(DB)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아이 연령·특성(알레르기 체질), 계절·지역 식재료, 영양소 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함으로써, 효율적인 급식 관리와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한다.

② (사물인터넷(IoT) 기반 위생관리) 어린이 급식소의 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부착하여 냉장고·냉동고 보관온도, 식재료 익힘 중심온도, 세척수 염소농도 등 위생점검 내용을 실시간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관리 기준 이탈 시 즉시 개선조치가 가능해져 어린이 급식의 위생·안전 강화에 기여한다.

③ (디지털 행정 포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위생 등 업무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전국 236개소, '22.11월 기준)에서 어린이 급식소(전국 3만 7,000개소, '22.3월 기준)의 현장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에게 어린이 급식 영양·안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식약처는 이와 관련된 인프라와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는 민간 기업의 제안을 받아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으며, 연내 제3차 제안공고 및 평가·협약을 거쳐 사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이처럼 민간이 제안하여 사업 추진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경우 예산 신청 전에 거쳐야 하는 정보화전략계

획(ISP) 수급 단계를 면제 받아 최대 2년 정도의 시간을 앞당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오늘 심의위원회 개최는 그간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활용됐던 민간투자형 사업을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분야에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 시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모범적인 후속 사례들을 조속히 발굴·추진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특허청, 인공지능으로 특허 심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특허청,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 발표

특허청은 '23년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디지털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2월 2일,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특허행정 혁신 이행안(로드맵)'('23~'27)'('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최근, 특허를 비롯한 산업재산권 출원 건수가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심사인력의 증원은 어려운 실정이고, 심사관이 검색해야 할 선행기술의 대상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심사환경이 점점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허청은 심사·심판을 비롯한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는 인공지능(AI) 활용 이행안(로드맵)을 확정하여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기반 심사·심판 체계 구축'을 핵심 목표로, 4대 추진전략과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첫째, 특허행정 전반에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 기반을 구축한다.

금년에는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특허 문서의 이해와 처리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도 구축한다.

이 과제들은 궁극적으로 심사관들이 방대한 특허문서들을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의 성숙도와 서비스 현황을 반영하여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다.

둘째, 인공지능(AI) 기반 기술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심사를 지원한다.

해외 특허문서의 한국어 번역문을 활용하여, 한국 특허문서에만 가능한

인공지능(AI) 특허검색의 범위를 미국·유럽 특허문서 등까지 확대한다.

또한, 현재는 이미지로 구성된 도형상표만 인공지능(AI) 상표검색이 가능하나, 이를 문자상표의 검색으로까지 확대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금년에 착수한다.

셋째, 심판 및 방식심사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한다.

특허청에 제출되는 각종 서류를 대상으로 절차상의 흠결을 점검하는 방식심사에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한다.

또한, 심판시스템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금년에 심판서류의 제출·송달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내년에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심·판결문 검색 서비스 도입도 추진한다.

넷째, 고객상담·특허데이터 활용에 인공지능(AI) 기술 적용을 확대한다.

고객 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상담 기능을 고도화하고, 그림 파일로 되어있는 일부 해외 특허문서나 특허문서상에 있는 각종 실험 데이터들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문서(텍스트) 형태의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하여 특허데이터의 품질과 활용성도 제고한다.

특허청 김기범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챗GPT의 경우,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질문에 답하기도 하고, 직접 작문도 할 만큼, 최근 인공지능(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최신 인공지능(AI) 기술을 특허행정 전반에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심사·심판 및 고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새싹지킴이병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부터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은 시도 단위에서 고난도 아동학대 사례를 치료·자문하고, 관할 시도 내 전담의료기관(전국 327개소) 의료진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2022년 8개 시도에서 시범 도입됐다.

보건복지부는 신규기관 4개소를 포함하여 총 11개 기관을 2023년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1차 선정하고, 2월 2일 14시 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업 설명회에서는 2022년도 시범사업 성과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2023년도 사업 주요 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은 정기적으로 운영 협의체, 현장 세미나와 성과보고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하는 등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하는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치료·보호되는 사례들을 확인하고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은 학대피해아동 보호 과정에서 의학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생긴 것을 시범사업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또한, 의료진들도 의심사례에 대한 자문 절차가 마련되고, 신고 이후 대응 창구도 일원화되는 등 심리적 부담이 줄어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를

신고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이라는 이름보다 아이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새싹지킴이병원'이라는 명칭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그 기능을 더욱 널리 홍보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최준근 인구정책실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체계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마련해주신 덕분에 광역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라며 "올해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된 만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보다 많은 학대피해아동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성지아/기자

우리 병원은 새싹지킴이병원입니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속한 감인, 치료, 상담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거나 신고, 경찰에 의학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등 아동의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의료기관입니다.

우리 병원 임직원들은 새끼 같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경원 위원장, 경력단절 부르는 공무원 임용 관련 독소조항 폐지해야

- 전경원 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4차 정기회에서 제안
-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퇴직 후 3년 이내의 경력만 인정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목), 충북 제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 위원장협의회' 2023년 제4차 임시회'에 제출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기준 완화 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전경원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경력직 공무원 채용은 공직사회의 개방성을 높이고 민간에 활력을 불어넣는 순기능이 있지만, 경력에 유효기간을 두고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등 사회 현실과 역행하는 면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제16조 2항과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5항에 따르면 경력직 공무원 응시자는

관련분야 경력으로 응시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 후 3년 이내에 응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대로라면 질병, 육아·가사문제, 전직 등으로 불가피하게 경력이 단절됐다 하더라도 퇴직 후 3년이 경과하면 수십 년의 경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차후 공직사회에서 과거 경력을 살릴 기회는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력유효기간을 두는 공직사회와는 달리 민간에서는 인생에 걸쳐 쌓아온 이력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차기 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전경원 위원장은 이번 건의안에서 "경력단절을 해소해야 할 공직사회가 오히려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현행 「공무원임용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의 해당 규정은 독소조항 중의 독소조항"이라며, "공무원 사회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협의회 논의 과정에서 전국 광역시도 운영위원장의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으며, 차기 의장협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 소관 부처에 공식적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김경희 화성시의회의 의장, 서신농협·한마음신협 정기총회 참석

화성시의회장이 3일 서신농협 본점에서 열린 서신농협 정기총회와 화성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우정을 한마음 신협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서신농협 정기총회에는 김경희 의장, 정홍범 도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송옥주 국회의원, 서신농협 조합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 내빈인사, 축사, 2023년 사업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김경희 의장은 "작년여름, 기록적인 태풍과 집중 호우로 농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에도 서신농협은 피해 현장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 등 농업인의 아픔에 함께했다."며, "평소에도 영농교육, 각종 복지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서신농협의 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마음신협 정기총회에는 김경희 의장, 조오순 경제환경위원장, 이계



철 의원을 비롯한 송옥주 국회의원, 신협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해 시상과 기념사, 격려사,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신협은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지역주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다."며, "우정읍 한마음신협이 더욱 성장하여 지역사회가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데 큰 공헌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경기도의회 남중섭 더민주 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 충청권 3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 개최

전국광역의회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 지방의회 위상 강화 실현해야



남중섭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가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힘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남 대표를 비롯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부대표단은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표의원 여미전)와 충청북도의회(대표의원 변종오), 대전광역시의회(대표의원 송대운)를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남중섭 대표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전국광역의회의원협의회 대표로 선출된 후 지난 달 12일 강원도의회에 이어 올해만 벌써 두 번째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의 정담회를 성사시킨 셈이다.

방문길에는 남중섭 대표를 비롯해 박세원 정무수석, 김철진, 명재성, 이병숙 정무부대표 등이 함께 했다.

남중섭 대표의원은 "지난해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면서 "비록 길이 험난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전국 의원들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 대표의원은 향후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 활동 계획을 세종, 충북, 대전광역시의회 대표단에게 설명하고 뜻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여미전(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변종오(충청북도의회), 송대운(대전광역시의회) 대표의원 등도 "지방의회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완전한 개정이 속도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힘을 모으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오는 15일 전국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연석회의의 장소를 경기도의회로 최종 확정 짓고 17개 광역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굳게 모으고 더욱 실천적인 활동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혜영/기자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간담회 개최

평택시의회 이관우 부의장은 3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진위면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관우 부의장이 주관한 이날 간담회에는 평택시의회 이종원 의원, 이윤영 도시개발과장 등 관계 공무원, 진위 가곡지구 추진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한 지역주민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진위면 가곡리 일원에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6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곡지구 개발 현황 및 추진 계획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조속한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의 사업 관련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관우 부의장은 "진위면은 과거부터 각종 개발 제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받은 지역이다"라며 "오랜 기간 개발이 정체된 지역민만큼

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이를 위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시현/기자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 "기업도시·국제자동차경주장 전남도 결단 필요"

전남도의회 김태균 부의장(광양,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2023년도 기업도시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수년째 지지부진한 기업도시의 진척상황과 국제자동차경주장 운영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결단을 촉구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2014년 업무보고에서부터 지금까지 기업도시 조성 계획은 조금씩 지속적으로 변경되어 왔다"며 기존 예정된 구성지구(632만 평)개발과 현재 계획된 재생에너지 발전단지(430만 평)의 조성 가능성이 묻었다.

또, 영암·해남 기업도시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을 주도한 특수목적법인의 경영상태와 사업을 주도하는 모회사,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가 투자한 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의 혈세가 쓰였음에도 남은 것은 골프장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지지부진한 기업도시 개발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발부지 축소, 사업의 집적화 등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자동차경주장의 흥보전 광판과 경주장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의 적절성, 시설투자비와 유지비·인건비를 제외한 손익계산의 문제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비한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경주장 운영권을 소재 지자체 또는 전남개발공사 기관 등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열린 이벤트의 개최를 전국 체전 개최 시점(10월)과 맞추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태균 부의장은 3선 도의원으로서 제11대 전반기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장,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제11대 조합회의 의장,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특히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는 전라남도의회 부의장과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지역 경제 회복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해명/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1899.9659

대표이사:발행인:최수진 .편집국장:최재은. 부회장:박무석, 임석경 청소년책임보좌자: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등록일 2013-07-12 계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편집국:02.2612.2959	정치부:내선 (112)	문화부:내선 (116)
광고국:1899.9659	사회부:내선 (113)	부동산부:내선 (117)
	경제부:내선 (114)	오피니언부:내선 (118)
	스포츠부:내선 (115)	지방부:내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로 534 4층 411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북구, 난방비 교통 극복 위해 18억 긴급 자체 지원

서울 성북구가 기록적인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립경로당, 어린이집, 소상공인, 차상위계층을 위해 구비 약 18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

앞서 발표된 정부와 서울시 지원과 별도로 성북구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성북구 전역 사립경로당 100여 개, 어린이집 200여 개소, 소상공인 1만5천여 명, 차상위계층 3천여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르신이 매일 이용하는 관내 사립 경로당은 월 10만 원씩 3개월간 난방비를 특별 지원해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다. ▲ 국공립어린이집 및 사립어린이집에는 난방비 15만~20만 원을 지급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걱정도 덜어준다.

▲ 에너지 비용 인상으로 경제적 타격이 큰 소상공인은 1개소당 10만 원을 특별 지원한다. 연 매출 2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나선다. 서울시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약 3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1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전례 없는 한파와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성북구의 자체적 지원을 결성하게 됐다"면서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 후에도 지속해서 구민 어려움을 살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난방비 특별 지원은 성북, 강북, 노원, 도봉구가 구성한 동북4구 행정협의회(회장 이승로 성북구청장)에서 한파로 인한 구민 어려움을 덜고,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결정했다.

강성원기자

삶에 유의 주는 명사 특강, 서대문구민 행복도 높인다

2월 명사특강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

면역혁명

2023. 2. 24 (금) 오후 2시

서대문구청(6층) 대강당

이시형 박사

명사 특강: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좌교수, 서울대 보건대학원 석좌교수

강사: 이시형 박사

문의: 02-330-1048

서대문구청

서대문구가 철학, 심리, 경제, 건강 등 각 분야의 명사들로부터 세대를 아우르는 지혜와 지식을 접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특별 강연을 꾸준히 개최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올해 첫 시간으로 이달 24일 오후 2시 구청 6층 대강당에서 이시형 박사(89)가 '면역혁명, 당신의 면역 나이는 몇 살입니까?'를 주제로 강연한다.

정신과 의사로 강북삼성병원장과 삼성사회정신건강연구소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국민 정신 건강과 문화 성숙도 향상을 위한 (사)제로토던문화원장인 이시형 박사는 40여 년간 122권의 저서를 냈으며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해 하반기에 김형석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유영권 연세대 상담코칭지원센터장,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인요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등을 초청해 명사 특강을 개최한 바 있다.

강의 주제는 선진 국가로 가는 길, 행복의 삶과 가정 만들기, 기로에 선 한국 경제의 과제와 전망,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우리가 잃어버린 1% 등이었다.

이성현 서대문구청장은 "이시형 박사님의 이번 특강이 현대인들의 관심이 높은 전이적 건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 특강으로 구민 행복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서울시, 양육자 행복을 위한 새내기 초등학생·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 진행

우리 아이 입학 준비, 양육자의 일과 돌봄 사이 시간 관리 등 고민 해결

올해 3월 초등학교 입학 앞둔 자녀를 둔 맞벌이 가정입니다. 아이 식사, 등하교 준비, 방과 후 돌봄 등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쓰는 분도 계시고, 퇴사까지 고민하는 분도 계시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초등 입학 자녀를 둔 30대 이모

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정연정)은 오는 2월 11일(토) 자녀의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둔 양육자에게 초등학생 양육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은 양육자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양육 환경 변화로부터 안심할 수 있도록 '새내기 초등학생·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를 개최한다.

재단이 2022년 9월 발간한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례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초등 자녀가 있는 일하는 양육자는 개인시간 부족, 돌봄 기관의 양육자 참여의 어려움, 휴가사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면 시간을 줄이거나 퇴사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단은 '새내기 초등학생·학

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를 통해 초등 입학 자녀를 둔 양육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현실적인 고민 해소를 통해 심리,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두근두근 마음잡고'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이라는 양육 환경 변화로부터 양육자들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고, 일하는 양육자의 시간 관리 방법 등 일·생활균형을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젝트는 양육자를 위한 이야기 나눔과 강연 ▲'성장 프로그램'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 살림)에서 동시에 진행되어 초등학교 입학 앞둔 아동, 양육자를 포함해 관심 있는 누구나 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강연(13:00~15:00)에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자 '초등학교 입학, 1학년 생활의 모든 것'의 저자 김미자와 일하는 선배 양육자인 '엄마에겐 오프스 위치가 필요해'의 저자 이혜선, '아빠 육아 뉴스레터-선데이 파더스 클럽' 집필진 배정민이 연사로 나선다.

김미자 교사는 입학 전후 준비물 챙기기, 학사일정 확인하기, 선생님 과 소통하기 등 학교 시스템에 맞춰

학부모의 적절한 대응 방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1년간 학교가 어떤 행사와 활동으로 움직이는지 등 현직 교사의 설명을 통해 새내기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현실적인 양육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워킹맘, 워킹대디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고 있는 이혜선, 배정민 시민은 '학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후배 양육자를 위한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강연 후 연사와 함께하는 심화 토크에는 '내 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 최인성이 조정자(모더레이터)로 합류해 양육자의 깊이 있는 양육 고민, 일 고민 등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양육자가 강연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는 스페이스 살림 내 돌봄 프로그램 '감각과 사회성을 기르는 놀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문화 프로그램(15:00~17:00)에는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새내기 초등학생 학부모 응원 프로젝트

두근두근 마음잡고

2023. 2. 11. (토) 13:00~17:00

이러도 처음이지만 양육자도 자립한 초등학교 입학 준비 고민, 함께 나눠봅시다.

대상: 초등 입학 앞둔 초등학생 양육자 등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2층 상영동시공간 여가 및 스페이스 살림(대행동2-3번 출구), 온라인 생방송
신청: 서울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및 QR 코드 (링크: 서울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문의: 생활교육지원팀 teun25@seoulwomens.or.kr / 02-010-5145

강연 프로그램 (13:00~15:00)

- 13:00-13:15: 초등 입학 준비를 돕는 '초등 입학 준비'의 모든 것 - 김미자 (현직 초등학교 교사)
- 13:15-13:30: '엄마에겐 오프스 위치가 필요해'의 저자 이혜선, '아빠 육아 뉴스레터-선데이 파더스 클럽' 집필진 배정민이 연사로 나선다.
- 13:30-13:45: 워킹맘, 워킹대디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해내고 있는 이혜선, 배정민 시민은 '학부모가 되면 달라지는 시간 관리 방법'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소개하며, 후배 양육자를 위한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 13:45-14:00: 강연 후 연사와 함께하는 심화 토크에는 '내 일을 지키고 싶은 엄마를 위한 안내서'의 저자 최인성이 조정자(모더레이터)로 합류해 양육자의 깊이 있는 양육 고민, 일 고민 등을 나누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 14:00-14:15: 양육자가 강연에 참여하는 동안 아이는 스페이스 살림 내 돌봄 프로그램 '감각과 사회성을 기르는 놀이'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 14:15-14:30: 문화 프로그램(15:00~17:00)에는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 프로그램 (15:00~17:00)

- 15:00-15:15: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 15:15-15:30: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 15:30-15:45: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 15:45-16:00: 양육자와 아동,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폭력 예방 교육 인형극 '포도왕 가람이의 초등생활: 다른 친구의 사진을 찍거나, 올리거나, 놀리지 않아요!'와 ▲'두근두근한 마음을 담은 꽃 풍선 만들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 | 서울여성가족재단

이번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울 시민 마음잡고 프로젝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연정 대표이사는 "일하며 아이 키우는 부모들이 양육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특히, 초등학교 입학 시기가 되

를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새내기 초등학생 양육자를 돕는 마음을 담아 '두근두근 마음잡고' 프로젝트를 준비했다"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걱정과 불안은 덜고, 양육자와 아동 모두 행복한 첫출발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서초구, 환경오염물질 '무단 배출' 관리 강화 나선다

구, 지난해 158개 배출업소 점검결과 총 8개소 고발, 행정처분, 과태료부과 조치

서울 서초구는 지역 내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의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율관리 및 특별점검 등 집중관리에 나선다.

대상은 지역내 자동차 도장시설, 세차장, 실험실 등 310개 대기 및 폐수배출업소다. 구는 지난해까지 이러한 관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불시점검을 실시해 왔다.

구는 올해부터 지도 점검 실시 전 사전 안내문을 통해 자율관리를 강조함으로써 각 업소마다 환경관리 실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업주의 환경보호 의식을 제고하고 불시 점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

대된다. 사전 안내문을 통한 자율관리 이외에도 환경오염 불행 민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점검하고, 명절 연휴 등 시기별 특별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폐수 오염물질의 희석 배출 및 무단 배출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과 보관 △실제 업소 운영자의 관련 교육 이수 등이다. 구는 점검시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오염물질이 누출될 우려가 있는 업소의 유무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구는 점검결과 폐수 무단 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구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같은 주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동희기자

금천구, 안전한 사회 만들기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

금천구는 2월 3일부터 2월 17일까지 지역 내 자원봉사 캠프와 동아리를 대상으로 '2023년 이웃 안

녕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를 진행한다

“2023년 이웃 안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는 자원봉사 활동 영역을 다양화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생활 속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공모 분야는 △사회복지 △지역사회 발전 △환경 △교육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자원봉사 활동 분야다. 복지 대상자의 지속적인 안부 확인 서비스, 환경정화 및 정기적 점검(줍기와 조깅) 활동, 주민의 재능을 활용한 나눔 교육 활동 등이 해당된다.

이번 공모에서는 35개 자원봉사 단체를 모집한다. 최종 단계로 선정되면 재료비, 활동비 등 사업 관

련 운영경비를 단체별 10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금천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금천구청 자원봉사센터(구청 7층)에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금천구는 1차 서류심사, 2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 결과를 3월 31일 공개할 예정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영역의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이라며, "더불어 주민 스스로 찾아 해결하는 생활밀착형 자원봉사문화를 활성화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성동구 곳곳에서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 '풍성'

서울 성동구 곳곳에서 한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가 풍성하게 열린다.

먼저 오는 4일 오후 5시 살림이체 육공원 운동장에서 '계묘년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를 개최한다.

2019년 이후 코로나19로 중단된 지 4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정월대보름 한마당 행사는 매년 성동구민들이 함께 즐기는 성동구 대표 민속 축제이기도 하다.

이날 행사에는 식전행사로서 소원지 쓰기, 부럼깨기 및 민속놀이, 먹거리 마당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지며, 본 행사에서는 제례의식, 전통공연, 행운권 추첨도 진행될 예정이다.

대보름 행사의 백미는 한 해의 소망을 담은 소원지를 대형 달집에 매달아 태우는 '달집 태우기'다. 달집 태우기는 한 해의 액운을 방지하며 소원을 비는 민속놀이이며 바로 이어지는 강강술래와 함께 주민들의 따뜻한 화합의 장이 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성수2가제3동에서는 3일 오전 10시부터 성수구두테마공원에서 정월대보름맞이 주민화합 움



놀이대회를 개최하며, 달맞이봉공원 전당에서는 4일 저녁 7시부터 LED줄불놀이와 전통놀이, 대보름부럼나눔과 맥박이 떡 나눔, 달보기 체험 등을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평안을 기원할 예정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그동안

강성원기자

당신이 있어 서대문구가 빛납니다

서대문구가 구민과 소통하는 친근한 구 이미지를 구현하고 구정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3기 서대문구 홍보 모델'을 선발한다.

유아(4~7세), 학생(8~19세), 성인(20~60세), 어르신(61세 이상) 등 네 개 분야별로 모집하며, 관내 거주자로 모델 활동이 가능한 이들이 지원할 수 있다.

지난 2기 모델에 비해 유아 부분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모집 인원은 유아, 학생, 어르신이 각 5명, 성인이 10명 등 총 25명 안팎이다.

희망자는 구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프로필사진 1장 및 자신의 개성을 담은 15~30초 분량의 영상파일을 함께 이달 28일까지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접수 자료를 바탕으로 지원자들의 활동 의지와 표현력, 개성, 표정, 친근감 등을 종합 평가하고 3월 중 선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서류 전형으로만 진행되며 별도의 대면 심사는 없다.

위촉 기간은 올해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2년이며, 선발된 이들에게는 위촉장을 수여한다.

최만식기자

서대문구 홍보모델

제3기 서대문구 홍보모델을 모집합니다

3월 28일까지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제3기 서대문구 홍보모델 모집

2023. 1. 25 ~ 2. 28

용인특례시, 스마일 점퍼 수상학과 함께 2023 체육 정책 'JUMP UP'

높이뛰기 세계 랭킹 1위인 '스마일 점퍼' 수상학을 품에 안은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가 2023년을 맞아 보다 업그레이드된 체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용인시 체육진흥 중장기 발전 계획(2023~2032)'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 확충, 시민들의 시설 이용 편의성 향상, 공공체육시설 체계적 관리, 분야별 체육 활성화 정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2023년 본예산 337억원에 이월 예산 140억원을 포함시켜 올해 597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활력 넘치는 시민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용인특례시의 올해 체육 정책을 살펴본다.

생활체육시설 'JUMP UP' 시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목표로 미르스타디움 부지 내에 50M 수영장 10개 레인을 갖춘 반다비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에 들어간다.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의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이용시설인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서면 미르스타디움을 중심으로 종합 스포츠 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상일 시장은 지난해 말 조문만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을 만나 국비 40억원 지원을 요청했고, 올해 1월 3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출신인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과 만나 협조와 지원을 주문했다.

흥덕 청소년 문화의집과 연계한 기흥 국민체육센터는 오는 8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사업예산을 확보한 21개 사업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 광교스포츠센터 건립, 역북동 공공체육시설 설치, 동림고 하부 체육시설 조성, 기흥레스피아 축구장 정비, 구성동 게이트볼장 시설 개선 등이다.

생활체육시설은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JUMP UP' 시민 누구나 공정하고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처음 마련된다.

시는 이르면 5월부터 시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체육시설 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관내 대부분의 체육시설은 관리주체 별로 예약이 필요해 시민 입장에서 불편함이 컸고 불만도 제기됐다.

3개 구청 자치행정과, 용인도시공



사, 체육회, 공원관리과 등이 예약시스템을 담당 부서별로 운영해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줬던 공공체육시설 예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76곳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순차적으로 통합 예약 대상 장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일부 시설은 시민 세금으로 지어졌음에도 동호인들이 시설을 관리해 오며 따라 비 동호인들은 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예약과 관련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통합예약시스템이 가동되면 시민의 생활 체육 시설 접근성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높이 뛰기 세계 랭킹 1위 스마일 점퍼 수상학... 직장 운동경기부도 'JUMP UP'

높이 뛰기 세계 랭킹 1위에 빛나는 '스마일 점퍼' 수상학은 2023년 1월부터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소속 선수가 됐다.

우상혁 선수는 오는 2월 카자흐스탄 아시아 실내육상선수권 대회 출전을 시작으로 헝가리 부다페스트 세계 선수권대회(8월),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9월) 출전을 앞두고 있다.

시는 우상혁 선수가 이들 대회에서는 물론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또 우상혁 선수가 출전할 예정인 KTFL 전국실업육상경기 챔피언십 대회를 용인에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용인 미르스타디움의 육상트랙이 제2종공인 육상경기장으로 승인받아 대회 유치를 위한 여건은 마련됐다.

시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계약이 만료되거나 경기력이 저조한 선수들과의 계약을 마무리하고 17명의 선수를 새로 영입했다.

우상혁 선수를 포함해 국가대표 4명(육상, 검도, 유도)과 국가대표 상비군 2명(볼링)을 보유한 팀으로 바뀐 것이다.

시는 이들의 활약을 도모해 용인특례시의 스포츠 도시 위상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경기도종합체육대회 개최의 경험을 살려 올해 전국소년체전 경기도 대표 선발전을 유치할 계획이다.

우리 함께해요! 저소득층·장애인 체육활동 지원도 'JUMP UP'

시는 소득격차에 따른 생활체육 불균형의 문제를 해소하는 일에도 주력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 청소년들의 체육활동을 시가 지원하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의 경우 대상자와 지원 규모를 늘렸다.

지난해 376명에게 매달 8만 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 동안 지원했으나, 올해는 709명에게 매달 9만 5000원씩 12개월 동안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한다.

만 19~64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도 확대된다.

지난해에는 76명에게 매달 8만 5000원씩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10개월간 제공했다.

올해는 지원대상이 212명으로 늘어난다. 지원액도 매달 9만 5000원으로 올렸으며, 지원 기간도 12개월로 늘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요소인 체육 분야의 질적, 양적 성장을 목표로 여러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며 "시민 체육 활성화, 시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고 국비 지원 등을 더 많이 확보해 용인 체육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광명시, 민생경제 회복 및 양극화 해소 위한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 본격 추진

예산 112억 원 투입하여 취업 취약계층, 실직·폐업자, 생계지원 필요 대상에게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양극화 해소

광명시는 고물가 시대를 극복하고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해 2023년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을 2월 6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공공일자리 사업이 고용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들의 고용·생계 안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공공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 일자리로 취업 연계가 이어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공공일자리 사업으

로 일자리를 제공받은 대상은 ▲광명행복일자리 184명 ▲신중년일자리 175명 ▲함께일자리 106명 ▲새내기 청년일자리 109명 ▲지역공동체일자리 14명 등 총 588명이다.

이번 사업에는 총 1,775명이 지원하여 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특히 함께일자리사업 중 광명희망명동사업단이 11명 모집에 143명이 지원하여 13 대 1, 재개발(재건축)안전보안관이 83명 모집에 488명이 지원하여 5.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상반기 참여자들은 안전의식을 높이고 재해 발생 시 적절한 대처 능력을 키우기 위해 오는 2월 7일 광명시평생학습원 광명극장에서 안전·소양 교육을 받으며, 6월 30일까지 사업별로 주 15~40시간 근무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공공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는 각 사업장의 근로자 복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교육과 수시 점검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근로자가 안전하고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인천 대표브랜드 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 순항

3일, 20톤 2차물량 상차... 올해 총 100톤 수출예정



인천광역시 인천의 대표 브랜드 '강화섬 쌀'이 3일 강화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도정공장에서 상차해 오는 7일 부산항을 통해 캐나다 토론토로 출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9일 20톤을 캐나다 토론토 첫 수출에 이은 2차 물량으로,

이번에 수출되는 물량은 20톤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인천시와 강화군, 캐나다(토론토) 유통물류 업체인 갤러리아(Galleria) KFT는 인천지역 농산물(강화섬 쌀) 캐나다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강화섬 쌀'은 공해유발업소가 없

는 청정지역 강화도의 풍부한 일조량과 해풍을 맞으며 미생물, 마그네슘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 국내에서도 품질이 좋고 밥맛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쌀로, 1월 중반기부터 토론토 현지마켓에서 판매가 시작돼 교민과 현지인들의 밥상에 오르고 있다.

시는 올해 총 5항차에 걸쳐 강화섬 쌀 100톤을 수출할 예정이다. 나아가 상반기 중에는 농산가공품의 수출가능성 여부를 검토해 수출이 가능한 품목을 선정해 수출을 준비할 계획이다.

강승유 시 농축산유통과장은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강화섬 쌀이 판매가 시작된 만큼, 좋은 반응의 결과로 인천 농산물 수출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수출되는 농산물의 생산과 품질 관리에 보다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오산시-경기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우수기업 유치 등 경제도시 구축 박차

경기 오산시가 우수 중소·벤처기업 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이권재 시장과 경기벤처기업협회 서기만 회장, 박근노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장 집무실에서 경기벤처기업협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회원사 2,000개사를 갖고 있는 경기벤처기업협회를 통한 기업 유치와 창업지원 및 창업자 발굴을 위함이다. 민

선 8기 이권재 시장의 미래비전을 담은 'SMART경제도시 오산'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로 풀이된다.

협약에 따라 경기벤처기업협회에서는 투자연계, 벤처기업인증, 마케팅 교육 등을 관내 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권재 시장은 "급속한 경기침체 속에서 기업환경 개선지원 및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고 상호 협력업무를 수행해 나갈으로써 SMART 경제도시 오산을 실현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경제위기 극복에 앞장서겠다"며, "협력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은 긴밀히 협의하여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서기만 경기벤처기업협회장은 "글로벌 경제위기 등 산업구조와 패러다임이 급속한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재에 회원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더욱 촉진시키고 그 능력과 독창적 창의성,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회원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는데 오산시와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양시현/기자

수원시, 스마트폰 앱으로 에너지 사용량·탄소배출량 확인하며 '탄소중립' 실천한다

수원시 3개 아파트단지에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시범운영

수원시가 관내 3개 아파트 단지 1999세대에서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을 시범 운영한다.

수원시와 아주대학교,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수원시 주민자치회장협의회, 권선남광하우스코리아아파트·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는 2일 시청 상황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 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시민들이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전기·수도·가스 실시간 사용량·요금, 에너지 사용에 따른 탄소 배출량, 단지 내 탄소배출순위 등을 확인해 스스로 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중립 생활'을 확산하는 사업이다.

'탄소중립'은 지역에서 발생시킨 이산화탄소 배출량만큼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늘려 실질적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이다. 이산화탄소 총량을 중립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다.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은 상반기에 영통신나무실동보아파트(836세대), 권선남광하우스코리아아파트(363세대), 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800세대) 등 3개 단지 1999세대



에서 시범운영하고, 성과 분석 후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수원시는 모니터링 서버를 운영하고, 아주대학교는 모니터링 앱 지원·성과분석을 담당한다.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는 아파트단지의 참여를, 수원시 주민자치회장협의회는 주민들의 참여를 이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최기주 아주대학교 총장, 조미옥 수원특례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이재훈(영통신나무실동보아파트 입주자 대표) 수원시 아파트입주자대표협회 회장, 한미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 김범식 수원시

주민자치회장협의회 회장, 박경규 권선남광하우스코리아아파트 입주자 대표, 고광철 힐스테이트호매실아파트 관리소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시장은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가용 이용을 줄이는 등 생활속에서 탄소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다"며 "탄소 모니터링 사업이 수원시 전역으로 확산되고, 나아가 전국·전 세계로 전파될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미옥 수원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우리집 탄소모니터링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안양시, 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설치 보조금 신청... '난방비'도 절약하세요

안양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난방비도 절약할 수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

특히, 시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의 저소득층 대상 정부 보조금 60만원에 시비를 추가해 80만 원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저녹스 보일러는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인 질소산화물을 약 80%까지 감소시키고 에너지 효율도 높아 난방비도 절약되는 친환경 보일러다.

시는 2020년 4월 이전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일반세대에 10만원,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세대에 8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물량은 일반 3,000대 및 저소득층 50대로 총 3050대이다.

신청은 주택 소유자,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보일러를 공급하는 판매자가 할 수 있으며, 시청 기후대기과(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으로도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2월 22일까지이며, 보조금은 선착순으로 지원해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난방비 급증으로 어려운 때에 대기환경오염 개선은 물론 난방비도 줄일 수 있는 이번 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신청기간 : 2023. 1. 16. ~ 12. 22. 신청대상 : 가. 안양시 소재 주택 소유자,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 나. 보일러 설치업체 등 보일러를 공급·판매자

지원내용 : 방문 또는 우편·온라인 접수 설치 지원 자재의 보기

윤용민/기자

3년만에 인천오는 크루즈선 ... 인천시, 크루즈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3일, 인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촉식 및 위원회 개최

인천광역시시는 2월 3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크루즈산업분야 전문가 10명을 위원으로 하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를 재구성하고, 위촉식 및 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최초로 구성된 인천시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는 시 크루즈산업 종합계획 수립,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 역할을 한다. 기존 위원들의 임기가 지난해 말 만료돼 새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 위촉된 7명의 위원들의 위촉식과 3년만에 재개되는 크루즈 운항과 관련한 시의 준비사항, 크루즈 산업 활성화 정책 추진방향 등 크루즈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논의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입학금지 조치로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은 지난해 10월 해수부의 '크루즈선 입항 및 여행객 하선 관광 재개 등 크루즈선 운항 정상화 안내'로 3년만에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오는 3월 승객 544명을 태우고 흥

릉에서 출발하는 하팍로이드의 유로파2 (4만3천톤급)가 내항으로 입항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12항차 18,148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크루즈 전용터미널 및 내항 등을 통해 인천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이러한 크루즈 재개 시점에 크루즈산업분야 전문가인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시 정책에 접목,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 인천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현모 시 해양항공국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인천공항 및 22만5천톤의 크루즈선이 접안할 수 있는 국내최대 규모의 크루즈 전용터미널 등 훌륭한 인프라시설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크루즈 관광객들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많은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다"며 "인천시는 인천관광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함께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니,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종남기자

정명근 화성시장, "소각장 입지 선정, 한 점 의혹 없도록 할 것"

정명근 화성시장은 최근 화성시 신규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입지선정에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한 점의 의혹이 발생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시민들에게 소각장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와 평가 진행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관계부서에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는 현재 봉담읍에 일 300톤 처리규모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인구 증가와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등으로 자체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시점이다.

화성시는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9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해 유치 희망지역을 접수 받았다. 그 결과 비봉면 양노리, 팔탄면 울

알리, 장안면 노진리 등 3개 지역이 신청을 마쳤으며 2022년 11월부터 입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지 선정을 위해 대학교수 등 관계전문가 7명, 입지선정지역 주민대표 3명, 시의원 2명, 공무원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만들고 회의결과를 화성시 홈페이지(정보공개-사전정보공표목록)에 게시하여 시민들은 언제든 열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향후 전락환경평가서 초안이 작성되면 20일 이상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며,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사업 건설공사 착수에 앞서 세부적인 환경요인 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화성시는 올해 소각시설의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이후 기본계획 작성, 사업계획 적정성검토 등을 하여 국가 관계기관에 승인을 득하고 2028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양시현기자

고양특례시, 2023년 취약계층 대상 자산형성 지원 사업 운영

고양특례시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돕기 위해 2023년 '희망저축계좌 I, II' 신규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은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입기간 3년 동안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 적립함으로써 목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은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3년 이내 탈(脫)수급 시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월 3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희망저축계좌 II'는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 또는 차상위 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매월 10만원(최대 50만원) 저축 및 자립역량교육이 수·사례관리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월 10만원 적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희망저축계좌 II'는 현재 법정 차상위자로 관리되는 대상이 아니어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차상위계층)에서 명시하는 범위에 해당한

다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희망저축계좌 I'은 2.1.~13.(1차), 4.3.~13.(2차), 6.1.~13.(3차), 8.1.~11.(4차), 10.2.~12.(5차) ▲'희망저축계좌II'는 2.1.~22.(1차), 5.1.~24.(2차), 8.1.~23.(3차) 이다. 이외에도 5월에는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만 15세~39세의 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신분증,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명서류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고, 이를 발판 삼아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공익활동단체에 최대 700만원 지원. 참여단체 공모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 협력적 활동을 위한 맞춤형 사업 지원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예비)공익활동단체의 자율적·협력적 활동을 지원하는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 참여단체를 오는 2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2023년 공익활동단체 지원사업'은 지원목적에 따라 비영리 스타트업과 기획사업 2개 분야로 공모한다.

'비영리 스타트업 분야'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실현할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과 사업을 지원하며,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1:1 전문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로 제공될 예정이다.

'기획사업 분야'는 지역의 공익확산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며, 사업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연구지원, 지역문제 해결, 현안 대응 3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 가능 대상은 경기도 소재의 (예비)공익활동단체(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활동을 하는 임의단체 등)이며, 단체별 300만원에서 최대 700만 원(지원 분야별

상)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사업 내용과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2월 중 사업설명회를 3회(경기 북부·남부, 비대면)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일정과 세부 내용은 공익활동지원센터 누리집의 사업설명회 안내문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8일 오후 6시까지며(단, 기획사업은 23일 오후 6시까지)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공익활동지원센터는 심사를 통해 3월 중 선정단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혜영기자



경기도교육청, 3.1.자 조직개편으로 학교 지원 기능과 역할 확대한다

본청 조직축소와 인력 재배치로 효율적, 체계적 업무 추진 기대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3월 1일 자 본청 조직개편과 함께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인력을 재배치해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도교육청은 기존 1실 5국 34과·담당관에서 1실 4국 28과·담당관으로 조직을 축소하고, 본청 감축 인원 84명(일반직 71명, 특정직 13명)을 포함한 총 167명(일반직 126명, 특정직 41명)을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재배치한다.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부서는 ▲교육정보담당관 ▲교원역량개발과 ▲미래인성교육과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시민협력과 ▲미래학교기획과 ▲도서관정책과 총 7개다.

신설하는 부서는 ▲학교업무개선 담당관으로 학교공동행정업무 지원 등 실질적인 학교 지원 역할을 담당

한다.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지원청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147명으로 ▲학교공동행정지원 확대 43명 ▲교원보호·학생인권·학교폭력예방 등 화재중재 및 갈등 해소 37명 ▲지역교육협력 강화, 늘봄학교 추진 등 28명 ▲예방적 학교감사 등 39명이다.

미래교육정책 추진 등 본청 업무 이관에 따라 직속기관에 재배치되는 인원은 총 20명으로 ▲경기도미래교육연수원 8명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 6명 ▲경기유아체험교육원 3명 ▲경기중앙교육도서관 등 3명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단설유치원과 소규모 학교 등에 행정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89명을 추가 배치해 학교 지원을 강화한

바 있다.

도교육청 이미용 행정관리담당관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경기 미래교육 정책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역량 있는 인재를 학교 현장과 가까운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추가 배치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만족도를 높여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 조직개편 관련 규칙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난 1월 31일 '경기도교육·학예법제정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2월 중순 공포 예정이며, 3월 1일부터 최종 시행한다.

조혜영기자

서귀포시, 자매도시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시장 고향사랑기부금 전달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은 맺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김보라 시장은 2일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을 전달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농협은행 안성시청 출장소를 찾아 제주도(서귀포시)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하고,

"교류도시의 발전을 위해 기부를 하게 되어 뜻깊다"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그동안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자매도시의 교류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경기도 안성시장의 기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두 지역의 상생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와 경기도 안성시는 2011년 자매도시 결연을 맺고, 상호시정 벤치마킹, 각종 축제 초청, 농산물 홍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국내 11개 교류 도

시와의 상호 협력을 통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에는 경기도 내 3개 교류도시(경기도 안성시, 의왕시, 인천시)를 직접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 답례품 등의 기부혜택을 안내하고, 홍보물 발송 및 홈페이지 게재 등 교류도시 간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지난달 1. 30일 서귀포시 오임수 부시장은 우호도시인 강원도 태백시를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하고 교류도시와의 끈끈한 우호관계 강화와 고향사랑기부제 확산에 앞장섰다.

조혜영기자

[용인특례시] 양지면, 입춘(立春)맞이 교동마을 대청소 실시

지난 4일 양지면 양지7리(이장 조혜영)는 입춘을 맞이하여 봄맞이 대청소를주민과 자원봉사들과 함께 실시하였다.

이번 대청소는 부녀회장과 주민들이 함께 나와 골목길과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작은 소공원 쉼터에 치우는 쓰레기와 낙엽, 음로수병, 스티치포, 담배꽂초 등 각종 쓰레기를 50L 공공봉투 6개 분량을 주웠다.

양지7리 교동마을은 조혜영이장이 취임하고부터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위해 꾸준히 지난해부터 매월 한두번 환경정화 대청소를 실시하였다.

조 이장은 이번 대청소를 통해 주민들간의 소통과 화합을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었고 더구나 입춘을 맞이하여 대청소에 함께한 주민들과 자원봉

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양지7리를 위해 환경정화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입춘이란 24절기 중 첫째 절기로 대한(大寒)과 우수(雨水) 사이에 있는 절기로서 보통 양력 2월 4일경에 해당한다.

태양의 황경(黃經)이 315도일 때로 이날부터 봄이 시작된다. 입춘은 음력으로 주로 정월에 드는데, 금년도 예외년에는 구정(1.1 음)을 지났지만 역년은 인월이 지나지 않아 비로소 지난 2월 4일 11시 43분이 절입시간이다.

즉 사주상 2월 4일 11시 43분에 태어난 시각부터 계묘(癸卯)생 토끼띠가 되는 것이다.

또한 입춘이전에 음력 1월1일이 들 어온 해인 2023년은 2월 윤달이 들기도 한다.

조혜영기자



교육부-경상북도-경북교육청,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협력기반 업무협약 체결!

학교시설 유희공간을 학생과 지역민이 함께 이용하는 생활SOC공간 조성 교육자유특구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시범사업 등 적극 대응



경상북도는 지난 3일, 포항고등학교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김병욱 국회의원,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이강덕 포항시장, 남한권 울릉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학교복합시설은 학교부지 내에 학생교육과 지역주민 생활에 필요한 교육, 문화, 복지, 체육 등과 같은 공공시설을 복합·입체적으로 설치, 운영하여 지역사회와 유기적으로 연결을 맺고 공존하도록 하는 새로운 학교시설 모델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통합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방안으로 학교복합시설 활성화 협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협약내용은 경상북도 학교

복합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내외적 여건 조성, 사업 관련 자료정보의 상호공유, 다양한 투자제원 확보, 기타 상호협조에 의한 협력사항 등 참여기관의 상호협력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일 발표한 교육부의 4대 교육개혁 중 지역맞춤 핵심정책으로 추진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사업 활성화 방안이 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도에서는 지난 13일 영양군과 영양초등학교 시설복합화(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문경시와 문경중학교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도는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경북이 더욱 살기 좋은 곳이 되어 지방정주시대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도

교육청과 협력 도내 학교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추진하는 교육혁신으로 지역별 맞춤형 교육이 가능한「교육자유특구」추진과 대학규제 완화와 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권한의 지자체 이양으로 지방정부 주도의 지역과 대학이 동반성장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사업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앞으로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늘어나는 학교의 유희시설을 활용한 도서관, 주차장, 복합체육시설 등을 더욱 확대해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을 통해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경북을 만들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경주시 각계각층 따뜻한 나눔·도움·봉사의 손길 이어져



☞우리카드는 지난 30일 경주 경주시가 국내 최초·최대 규모로 조성한 정규 규격의 실내축구장 시설인 '스마트 에어돔' 준공식서 장학금 1천만 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다. ☞우리카드사의 기탁은 미래 경주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의 교육 경쟁력 강화에 동참하기 위해 전달한 이 장학금은 학생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또한, (재)문화엑스포는 지난달 31일, 2022년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종합평가도 평가대상에서 우수기관을 수상해 받은 시상금 100만 원을 (재)경주시장학회에 기탁했으며, 또, 매년 지역의 중·고등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경주시 외동읍회는 지난 2일, 외동읍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생과 학부모가 참석한 가운데, 7명의 중·고등학생에게 30만원씩 210만원의 장학금을 후원해 학업에 충실한 학생들을 격려했고, 경주 황남동 경주남부교회회는 지난 4일, 독거노인과 홀몸 장애인, 질환자 등 복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과 안부확인을 위한 사업인 '건강음료 배달사업' 비용 7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경주시 감포읍 척사항 소형선박협회는 지난 1일,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인해 해양쓰레기가 항구내로 많

이 밀려온 탓에 항구에 정박하는 선박들의 훼손 위험이 있어, 포항해경감파출소와 민간 다이버, 소형선박협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척사항에서 해양환경정비를 진행해 해양쓰레기를 수거했고, 경주시 강동면 주민 20여명은 지난 1일, 모서2리 마을별 진입로와 국도7호선 주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해 각종 쓰레기를 제거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경주시 용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협력사업으로 '가득쌈(찬)행복반찬 지원사업'으로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안부를 챙겨 오고 있는데, 이번엔 지역 내 독거 중장년층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돌봐드릴 가족이 없거나 안전 확인이 필요한 독거 중장년세대에게 배달일이 주 3회 방문하여 건강음료를 전달하며 음료를 미수령하는 등 위급상황 발생 시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하면 용강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안부를 확인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연계해 위기상황에 대응하는 등 고독사를 방지에 주안점을 둔 사업 건강음료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경주시 안강읍 새마을부녀회는 예방병원 북경주행정복지센터장, 정성룡 시의원, 손지익 경주시새마을지회장과 함께 지난달 31일, 대한노인회 경주시지회 안강분회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드리며 식

탁, 의자 등 환경개선 물품(350만 원 상당)을 지원했으며, 경주시 선도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달 30일, 새해를 맞아 경료효친 사상과 고령화시대에 따른 노인복지의 중요성을 되새기 고자 지역 최고령 정○○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새해인사와 함께 세배를 드리고 새해선물을 전달했으며, 경주남부교회 1마을 선교회는 지난 3일, 추운 날씨 난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를 위해 연탄 353장을 경주시 월성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경주시 북경주행정복지센터는 지난 2일,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연계를 논의하기 위해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해, 치매 독거어르신의 주거, 의료, 일상생활 유지 등의 지원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서비스를 연계하기로 했으며, 경주시 황성동은 지난달 27일,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청년회, 자율방재단, 바르게살기위원회, 달달복지단, 버드나무봉사회 등 회원 49여 명이 참가해 '플로깅 빌리지 황성동 만들기' 일환으로 형산강 하천변에서 대대적인 환경정비활동을 실시해 형산강 하천에 버려진 각종 폐기물과 바람으로 날려 온 생활쓰레기, 도로에 투척된 각종 오물 등을 집중적으로 수거하는데 구슬땀을 흘렸다.

윤타용기자

부산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버스 언박싱(Unboxing)' 행사 개최

- '버스로 친절로 EXPO로!', 부산버스,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 위해 달린다! -
- 2.6. 14:00 시청 시민광장, '2030부산월드EXPO 버스'공개 행사 개최
-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시민 호응 유도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위원을 담은 '2030부산월드EXPO 버스'가 시내 곳곳을 누닌다.

부산시는 오는 6일 오후 2시 시청 시민광장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버스 언박싱(Unboxing)」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안성민 시의회 의장, 박재호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특별위원장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열기 고조와 시민 호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특별 제작한 '2030부산월드EXPO 버스'를 공개한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역동적이고 다양한 에너지(유치 열기)를 다채로운 파도에 담아낸 '2030부산월드EXPO 버스'는 100대가 투입되며, 김해공항, 부산역 일원 26개 노선에 집중 배치해 부산의 세계박람회 유치 열기를 실어 나르면서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는 시민, 관광객, 외국인 등이 도로 곳곳에서 맞이하는 '2030부산월드EXPO 버스'를 통해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의 자연스러운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내 대한민국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한층 더 결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4월 3일부터 4월 7일까지 5일간 예정된 국제박람회기구(BIE) 실사단 부산 방문 시에도 부산의 뜨거운 유치 열기를 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이 집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2030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에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2030부산월드EXPO 버스와 부산 버스는 앞으로도 계속 달려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송종진기자

대구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도시숲' 조성 추진

-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14개 사업 118개소 113억 원 투입
- 기후 위기 대응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 생활권 내 다양한 숲 조성·관리로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대구시는 올해 113억 원을 투입하여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확대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비롯한 14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숲은 도심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 현상 완화 등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도시경관을 향상하기 위해 조성·관리하는 숲이다. 이에 대구시는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등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탄소중립 도시 실현 및 심리적 안정과 휴식·정서함양 등을 위한 도심 내 부족한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생활권 내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숲 조성 사업으로는 기후대응 도시숲 등 5개 사업 21개소 80억 원, 생활권 녹지 조성 사업에 담당 허물기 등 9개 사업 97개소 33억 원으로 상반기에 착공해 연말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청에서 중점 추진 중인 도심의 미세먼지 저감 및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에 총사업비 300억 원중 2019년부터 2022년까지 200억 원을

1차 사업에 투입해 두류공원 내 대구 대표숲 등 38개소 48ha 조성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 5억 원으로 2차 사업 시설계용역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2024년부터 2025년 까지 2년에 걸쳐 95억 원의 사업비로 금호강 등 하천수생태축을 중심으로 도심 내 대기순환을 유도하는 도시바람길숲 조

성해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형재 대구시 환경수자원국장은 "도심 열섬화와 대기오염에 대응한 도심 녹지공간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생활권 내 다양한 도시숲 조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안동시립중앙도서관, '음악이 흐르는 스테디움' 운영

- '정숙'의 대명사인 도서관, 고정관념 깨고 음악 틀어 집중도 UP
- 음악 재생 통한 소음경감 및 자유로운 그룹학습 분위기 형성

안동시립중앙도서관이 그룹학습 공간인 '스테디움'을 이달 1일부터 '음악이 흐르는 스테디움'으로 운영하고 있다. 조용하고 엄숙한 곳으로 여겨지는 도서관이 음악 소리와 함께 활력적인 에너지 넘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모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발맞춰, 스테디움내에 잔잔한 음악을 재생해, 소음을 경감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그룹학습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작년부터 일반자료실 및 어린이자료실에 음악을 재생하여 만족도를 높이고, 일반열람실 예도 백

색소음을 재생하여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경험했다. 안동시립도서관 관계자는 "그 도서관은 감동이 있어"라는 책 내용 중 도서관은 가장 저렴하고 가장 안락하고 가장 문화수준이 높은 쉼터이자 놀이터라고 한다. 우리 도서관은 더 이상 책만 대해 주고 조용히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닌 음악을 듣고,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는 지역사회의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 포스텍방문, 연구중심의대 설립 "탄력"

- 경북만의 차별화된 의사과학자 지원방안으로 의대정원 확대 적극 어필
- 교육부↔경북도↔포항시↔포스텍 의사과학자 양성 간담회 개최

경북도는 3일 포스텍 본관 대회의실에서 교육부·포항시·포스텍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향한 공감대 형성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병욱 의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김무환 포스텍 총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과학자 양성을 위한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다. 먼저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안) 설명을 통해 포항시와 경북도는 준비된 의사과학자 양성 지역으로서 ▲단단한 바이오 인프라 ▲끈끈한 지역 의료계와의 유대관계 ▲시대적 과제인 국가균형발전 문제 해결이라는 3대 요건을 갖춘 경북 포항의 장점을 어필하며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적극 펼쳤다. 또한, 경상북도·포항시·포스텍은 바이오 헬스 산업을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만든다는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부에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을 위한 의대정원 확대를 건의하였다.



이에 세계적으로 코로나 19를 겪으면서 백신 치료제 등 바이오 헬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새로운 형태의 의학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의사과학자 양성은 중요한 국가적 과제

라는 것에 참석자 모두가 깊이 공감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앞으로의 의학은 ①미리 질병을 예측하는 예측의학 ②인공장기를 이용하는 재생의학 ③난치병 치료를 위한 맞춤형 신약개발 등 이 모두가 과학과 공학, 의학을 융합하는 연구임을 감안하면 의사과학자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라며 의사과학자 양성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우리 도에서는 대한민국을 바이오 보국으로 선도해 나가기 위해 ▲포항·안동지역 바이오연구소와 연계한 일자리 보장, ▲의무 연구기간 2년과 벤처기업 창업 3년간 지원금 조성을 비롯하여 ▲민간기업 투자를 통한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과 R&D 예산을 지원하는 등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차별화된 준비를 마쳤다."라고 밝혔다. 한편, 포스텍 연구중심 의과대학은 세계최초 과학기반 일리노이대의 커리큘럼을 도입하여 의과전문대학원 형태로 MD-PhD 8년 복합학위과정(2+4+2)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2028년 개원을 목표로 한 스마트병원(500병상), 의과학 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민간 기업 투자를 적극 유치하는 등 추진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달성군, 대구시 최초 '생활권역 실외 정원' 국비 5억 확보

정원을 품은 달성, 세천뉴테마정원에 실외 정원 조성

달성군이 지난 2일, 다사읍 세천뉴테마정원(다사읍 세천리 1669)이 올해 산림청 생활권역 실외 정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2023년 생활권역 실외 정원 조성사업은 탄소 저감, 폭염 완화 등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 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지자체 중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돼 산림청 국비 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산림청의 '생활밀착형 숲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생활권 주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거주민들의 일상 속 녹지 공간 확대를 위해 다양한 형태로 생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세천뉴테마정원은 2022년 1차 장미정원, 2차 동화정원, 3차 테마정원까지 주제를 가진 정원 3개소(A=23,700㎡)가 조성되어 정원문화 및 정원정책 활성화가 가능한 곳으로 생활권역 실외 정원이 조성됐을 때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곳이다. 또 달성군은 올해 산림청 무궁화동산 조성사업에도 선정되어 세천뉴테마정원에 5,000㎡ 규모의 무궁화동산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다사읍 세천뉴테마정원이 달성군을 넘어 대구를 대표하는 정원이 되도록 발전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정원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 제9·10대 회장 이·취임식 개최

3일 11시 구미 금오산호텔에서 제10대 김묘라 회장 취임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는 3일 11시 구미시 금오산호텔에서 제9대 회장 이임식과 제10대 회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여성기업인협의회는 여성기업인 상호간의 경영, 자금, 마케팅 등의 정보교류와 여성기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2004년 설립되어 현재 총 15개 지회에 경북 소재 중소기업 여성대표 269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대 회장으로 취임하는 김묘라 회장은 텔레비전 전자부품 등을 생산하는 대영정밀의 대표로, 경북여성기업인협의회 수석부회장 및 전국의 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 등을 역임하며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왕성한 활동을 펼쳐 왔다.

김묘라 회장은 취임사에서 "그동안 경북 제조업을 대표하는 우리 협의회를 이끌어주신 박운형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신임회장으로서 경북 여성기업인의 역할을 모아 지역사회에 본보기가 될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현업으로 바쁘신 상황에서도 항상 지역을 위해 앞장서주시는 경북여성기업협의회 임원진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항상 그래왔듯이 지역 여성기업인의 등대 역할을 해주시라 생각하며 경북 여성기업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지방시대를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하였다.

윤근수/기자



영주시, 2023년 경상북도 대표축제 2개 부문 선정

- 한국선비문화축제(우수축제), 무섬외나무다리축제(미색축제) 각각 선정



영천시, 마늘 품질향상 위해 발벗고 나서

영천시는 2일 영천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늘 생산자·유통 단체 및 농업 관계자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영천시에서는 2023년 마늘 재배전망 및 마늘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설명을 했고, 생산자·가공단체 등 각 대표들이 의견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한국마늘가공협회 최진욱 회장은 영천 마늘가공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유통개선을 위해 마늘의 품질향상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경북도지부 김상훈 지부장 역시 마늘 품질향상을 위해 농가 재배마인드 제고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화산농협 정낙은 조합장은 마늘수매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개선점을 설명했다. 의견 발표를 끝으로 본격적인 마늘 품질향상 토론회에서는 올해 타 지역 대비 깎아지른 수율은 80~85%로 비수

하나 19mm이상의 대(大) 비율은 조금 낮고, 파지 비율은 조금 높게 나왔다며 (사)한국마늘가공협회 박승찬 사무국장이 포문을 열었다.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영천시지회 정동식 사무국장은 "마늘생산자 인 농가들이 건조, 선별 및 저장 시 마늘의 충격 등 관리소홀로 마늘의 변색, 물러짐 발생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뜨거운 토론 끝에 영천 마늘의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함께 모았다. 한편 최기문 영천시장은 "영천 마늘산업의 주체들이 한 자리에 모인 오늘 토론회는 매우 뜻이 깊다."면서 "오늘 토론회에서 영천마늘의 품질향상 방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생산, 가공 및 유통 등 각 주체가 할 역할을 잘 이행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윤영탁/기자

영주시 한국선비문화축제와 무섬외나무다리축제가 경북도 지정 우수축제와 작지만 특색있는 축제인 미색(微色)축제 공모에 각각 최종 선정됐다. 공모 선정으로 한국선비문화축제는 7천만 원,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는 2천만 원의 도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선정이 기존 관광진흥과를 부시장직속의 관광개발단으로 개편하면서 관광정책에 힘을 싣고 있는 민선8기 영주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했다.

올해 도 지정축제는 경북을 대표하는 내실 있고 완성도가 높은 지역의 축제를 발굴하기 위한 사업이며 시군별 1개의 우수한 축제를 추천받아 축제콘텐츠와 조직역량·운영, 지역 사회 기여, 자체관리시스템, 안전관리체계 등 13개 평가항목을 평가해 선정됐다. 선비문화축제는 선비퍼레이드, 선비정신을 배울 수 있는 게임과 공연 프로그램 등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콘텐츠 및 관광객 안전을

우선으로 한 공간구성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축제로 선정됐다. 미색축제는 경북도에서 올해 처음시행한 공모사업으로 조용하고 안전한 특색 있는 축제로의 선화 변화로 시군 면 단위, 마을 단위로 개최되는 축제 중 작지만 색깔 있는 축제를 발굴해 지원하고자 선정했다. 무섬외나무다리 축제는 '무섬 외나무다리,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다'라는 독특한 주제로 무섬마을 주민이

직접 재연하는 전통혼례, 상여행렬 행사 재연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형 축제로, 이번 공모에서 주제의 독창성과 지역주민 관여도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미색축제로 선정됐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공모선정 결과와 축제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약하는 영주시를 만들기 위해 관광 분야에 끊임 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봉화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 위해 총력 대응

-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 실시
- 발빠른행보로 백두대간, 춘향목 지키기에 최선

봉화군은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을 예찰하고 봉화군 방제전략 수립 등에 반영하고자 지난 2일 봉화군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재선충병 항공예찰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치료제가 없어 감염되면 100% 소나무를 고사시켜 소나무에이즈라고도 불리며, 최근 연접 시.군으로부터 봉화군으로 감염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항공예찰은 봉화군 산불진화 임차헬기를 활용해 봉화군청과 영주국유림관리소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봉화군 봉화읍, 물야면, 봉성면, 법전면, 명호면, 상운면 일원을 중심으로 항공예찰을 실시했다.

또한, 항공예찰 중 발견한 피해목은 GPS 등을 이용해 좌표를 취득하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을 투입해 지상 정밀예찰조사를 실시하고 감염여



부를 확인해 방제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항공예찰을 비롯해 타 시.군 연접지역 지상 예찰 및 소나무류 무단이동 단속초소 운영 등 제



정충병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봉화군이 자랑하는 백두대간 보호지역과 춘향목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영양군,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 국비공모 선정

- 국비 5억 4천만원 등 사업비 총 10억 8천만원 확보
- 영양군, 타시군 공모사업분야 타시군 비해 압도적 선정 돼

영양군은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억 4천만원을 포함한 총 10억 8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지역문화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여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줄이고자 마련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지역문화 인재양성, 생활·문화 동아리 발굴 및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다.

영양군은 영양문화원, 영양축제관광재단 및 관내 문화예술단체와 함께 지역의 전통문화 육성을 통한 영양의 문화적 잠재력을 발굴하고 관내 문화예술단체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군민의 문화정주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사업 선정 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으로 영양의 문화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추



이루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군민과 대화의 날 성황리에 마쳐

- 윤경희 군수,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속 시원한 소통행정 ‘눈길’
- 군민 입장에서 군민만 생각하고 군민만 바라보는 군정 펼쳐

윤경희 청송군수가 2023년 새해를 맞아 실시한 ‘군민과 대화의 날’이 주민들의 많은 공감 속에 지난 3일 진보면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선8기 들어 처음 추진된 이번 ‘군민과 대화의 날’은 지난 성과와 올 한해 군정운영 기조 및 방향을 군민과 공유하고, 각 읍·면의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1월 31일 주왕산면·청송읍을 시작으로, 2월 1일 현동면·안덕면, 2월 2일 현서면·부남면, 2월 3일 파천면·진보면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각 읍·면에서 진행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연스러운 소통을 이어가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윤경희 청송군수는 지역별 현안과 주민들의 생활 속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는 한편, 현장에서 즉문즉답으로 속 시원한 소통행정을 펼쳐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청송군은 주민 건의사항에 대해 현지 확인 및 계획 수립에 나서고 사안의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군민의 입장에서 최대한 조치 하겠다는 방침이며, 즉시 추진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군민과 대화의 자리는 군정에 대하여 주민들

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모두가 잘 사는 청송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옥박곡저수지 외 3개소 비상대처계획 수립

의성군은 지진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저수지 붕괴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옥박곡저수지 외 3개소에 대해 비상대처계획(EAP)을 수립한다.

군은 2015년 점곡면 황룡리 황룡저수지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주민 및 긴급동원업체 등이 참여하여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위기 대응능력제고 및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다.

농업기반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2021.10.14.)되면서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이 총저수량 30만㎡ 이상에서 총저수량 20만㎡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사곡 옥박곡지, 사곡 토현지, 봉양 덕은지, 의성 가중지 4개소가 신규 대상시설 로 지정되었다.



대상 저수지에 대하여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간 용역을 실시하여 저수지 붕괴에 따른 피해 예상지역, 비상상황관리, 응급조치, 주민대피 및 지역안전 등 종합적인 비상대처계획 수립으로 선제적 재난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관련법령 개정으로 저수지의 갑작스러운 재난 상황에 사전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들이 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금자/기자

2023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 개최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은 지난 3일(금), 청송교육지원청 2층 소회의실에서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를 위해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는 ‘2023년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계획’을 심의의 안건으로 교육장에게 위임된 5개 직종(교무행정사,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 특수교육실무사)에 대한 인사운영 전반을 심의하면서, 교육공무직원 과·결원 현황,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 전보 순위 및 전보 시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경상북도청송교육지원청 이호경 교육장은 “인력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여 학교에서 필요한 인사 운영을 추진하겠다”며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도록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신중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윤근수/기자

국가교육발전계획, 경북교육이 응답하다

경북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와 소통 간담회 가져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목), 용비관에서 국가교육위원회와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계 이슈를 중심으로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 국가교육위원회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김태준, 정대화 상임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경북교육청은 임종식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급별 학부모 및 교사 대표 등 총 30여 명이 참여해 열띤 대화를 이어갔다.

임종식 교육감은 환영사를 통해 “기존의 규칙과 질서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전환의 시대를 맞이해 미래에 적응하는 학생이 아니라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학생을 길러야 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며 “지역에서 자란 학생들이 세계를 품을 수 있도록 경북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는 갈수록 불확실성과 복잡성의 증가로 인한 학습자의 주도성을 키우기 위한 방안, 사회 양극화로 인한 교육격차의 해소 문제, 인공지능, 기후 위기, 학령인구 감소 등 미래교육 전환 요구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행 교원 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소규모 학교는 늘고, 교원 수는 줄어들게 되면 학교 교육력이 급격히 약화될 우려를 안고 있어 학교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사 기초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과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경북교육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통합 방역 시스템과 온학

교’를 통해 안전과 학습 모두를 지켜온 사례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미래형 교육과정인 ‘학생 생성 교육과정’, 지역에서 출발하는 생태교육 ‘낙동강 쿠레레’, 학교급별 경제교육, 독립운동 학생 해설사 등이 주목을 끌었다.

아울러 전국 최고의 융합체험 시설과 전국화·세계화를 이룬 사이버독도교육, 전국의 학생들이 찾아오는 특성화고교, 교육 걱정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정주학교, 공유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가치로 학생교육에 전

념하는 학교를 위한 ‘학교 업무 디지털 전환’ 등의 사례는 교육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았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바라보며 비전을 제시하고, 10년 단위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번 경북교육과의 만남은 정말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더욱 현장과 소통하고 지역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덕군, 한파를 녹이는 사랑의 손길 4억 1,085만원 모금

영덕군은 62일 동안(2022.12.01.~2023.01.31.) ‘희망2023 나눔캠페인 이웃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통해 총 1,288건 4억 1,085만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는 당초 목표액 2억 5,300만원의 162%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써 영덕군민들의 활발한 나눔의식 캠페인은 타시·군의 귀감이 되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해 12월 1일 희망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을 시작으로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과 함께 영덕, 강구, 영해 시가지를 돌면서 가두 캠페인을 추진하며 성금 모금활동에 힘썼다.

이번 모금은 9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성금모금활동을 추진하여 경기 불황에도 나눔의 온기가 지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지역 주민들의 작은 정성이 지역 곳곳에 나눔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모금된 성금은 영덕군의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군민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한파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삶이 더욱 팍팍하게 느껴지는 때에 실천하는 나눔이기에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는 더욱 뜻깊다.”며, “공공의 마음을 녹이고 희망을 꽃피우는 정성을 모아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전하며 모금된 성금이 뜻깊은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문화/기자



대구 남구, 미라클특강으로 창의행정 불 지퍼

- 미래의 나를 만나는 클래스 '미라클특강'
- 직원 대상으로 매월 경제, 트렌드,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 초청 첫 강의,
- 2월 1일 '충주시 SNS 이야기'를 통해 본 혁신'주제로 열려

대구광역시 남구는 지난 1일, 오전 남구청 드림피아홀에서 구 산하 직원들 대상으로 미래의 나를 만나는 클래스, '미라클 특강'(부제: 충주시 SNS이야기를 통해 본 혁신)을 개최했다.

미라클 특강은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행정환경의 거리감을 좁혀 창의적 조직을 만들고, 직원들이 탄탄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신 경제, 트렌드, 기술, 혁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정성급 강사를 초청한 특강을 매월 실시한다.

이날은 충주시 홍보보으로 잘 알려진 김선태 주무관의 "충주시 SNS 이

야기를 통해 본 혁신"으로 첫 강연의 문을 열었다.

남구청은 미라클 특강이 구정 미래 10년 어젠다인 '2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한 직원아이디어 발굴과 창의 행정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2023년 새해를 맞아 구정의 미래 가치 '20만 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망설임 없이 하는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면서, "직원들이 탄탄한 지식과 인사이트를 얻어 잠재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기자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

보부상 이야기, 활쏘기, 청단놀음 등 추석 명절 색다른 콘텐츠 제공

(재)예천문화관광재단이 주관하는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경상북도 지정 축제로 선정됐다.

경상북도는 지난 1월 30일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도내 13개 시·군 축제를 대상으로

축제콘텐츠, 안전관리계획 등 다양한 분야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는 추석 명절 귀성객들의 발길을 이끄는 대표 축제로 올해는주막과 나루터, 보부상의 이야기를 담아 명절 귀성길에 지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보부상을 K-세일즈맨으로 명명해 그들의 하루를 체험하는 K-세일즈맨의하루와 온 가

족이 즐길 수 있는 보부상 운동회를 비롯한 활쏘기, 청단놀음 공연 등 예천군이 가진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김학동 이사장은 "예천 삼강주막 나루터 축제가 경상북도 지정축제 선정돼 명절을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 잡게 됐다"며 "옛날 선조들이 주막과 나루터에서 쉼과 여유를 가졌던 것처럼귀성객들이 잠시 쉬며 힐링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울진군 정책홍보관 2월 정책회의 개최

울진군은 지난 2일, 군수실에서 정책홍보관 직원들과 '회합'으로 새로운 희망울진'의 군정 슬로건을 구현하기 위한 2월 정책회의를 개최했다.

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정책홍보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기본구상 용역 ▲울진군 표고버섯 재배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지속가능한 양파전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지속 가능한 산불 피해지역 활용방안 수립 용역 등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 ▲양파전 벚꽃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 등에 대해 정책 제안을 하였다.

특히, 「사계절 전천후 오션리조트 기본구상 용역」은 법규 및 행정절차, 「귀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도시민에게 귀농·귀촌하려는 동기 유발 및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 「양파전 벚꽃길 야간 경관조명 설치」는 양파전 일원을 상징하는 야간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군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효과를 파악한 후 피드백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사업과 중단할 사업 등을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결정된 사업은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장문희기자



부산시, 자립준비청년 지원 『자립+(더하기)동행 프로젝트』 추진!

- 부모의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의 홀로 서기에 동행합니다
-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 개최
-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으로 정서 안정 및 조기 사회 안착 지원

부산시는 지난 3일, 시청 7층 국제의전실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한 「자립+(더하기) 동행 프로젝트」 업무협약 및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되는 아동은 일정 연령에 도달하여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 청년으로서 자립을 시작하게 되는데, 「자립+(더하기) 동행 프로젝트」는 부산시와 지역 내 민간 기관이 연계하여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업무협약은 국내 대표적 아동 관련 기관인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버스가 참여, 협약내

용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과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시는 사업총괄, 홍보 등 행정적 지원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 본부는 보호종료 후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필요한 생활용품(수저세트, 침구류, 전기장판, 드라이기 등)으로 구성된 자립키트 제공 ▲월드비전 부산 사업 본부는 맞춤형 주거지원과 자기

성장계획에 근거한 진로를 계획할 수 있도록 꿈지원사업 지원 ▲굿네이버스 영남지역본부는 사회진출 위해 운전면허 자격 취득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또한, 사업의 원활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세정나눔재단에서 자립키트 사업비 5천만 원, 을 후원한다. 이날 전달식에는 세정나눔재단이 참석해 대표로 후원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민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부터 관련기관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회의를 통해 「자립+(더하기) 동행 프로젝트」의 사업 명과 지원사업을 유관기관과 함께 결정했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아동 후원, 권익보호 기관이 모두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공감하여 공동 사업으로의 추진을 이끌어 낸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립준비청년



의 자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기업·유관 단체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우리 시도 자립준비청년들이 조기에 성공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동행할 것이며, 이들이 꿈을 펼치며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의 조기 사회 안착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자립정착금을 전년 대비 300만 원 인상된 1,000만원을 지원, 대학

입학자에게는 대학입학준비금을 신설해 1인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유자청(유쾌한 자립준비청년) 사업 등 자립준비청년 자조 모임 등을 운영해 심리, 정서적 지지도 강화해 갈 계획이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으로 사회공헌을 희망하는 기업, 단체는 부산시 아동청소년과

(☎051-888-1642) 및 부산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051-441-7006)로 전화하면 된다.

송종진기자

2022년 통영 방문 관광객 16백만명 돌파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통계 결과 전년보다 694,827명(4.5%) 증가

통영시는 지난 해 2022년 통영 여행가는 해 추진과 통영국제 트리엔날레, 통영 한산대첩축제의 성공적 개최의 영향으로 2022년도에 통영을 방문한 관광객은 지난해 보다 694,827명(4.5%)이 증가한 16,104,160명이 통영을 찾았다고 밝혔다.

통영시는 지난 해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지역 관광 시장을 회복하고,

통영국제트리엔날레, 통영문화제 야행, 통영한산대첩축제 등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2년을 통영 여행가는 해로 선포하여 주요 관광지 스냅투어, 할인정책 추진, 특별여행주간 운영 등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해 왔다.

또 관광안내판 정비 상태, 관광지청결상태 등을 수시 점검하고, 관내 관광공사에게 친절과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친절환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힘썼다.

특히, 2022년에는 민간 캐릭터 등

백이와 통영 출신 유명 연예인 허경환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각종 관광박람회 공동이벤트와 홍보영상 촬영 등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국내 최대 관광학술단체인 한국관광학회 및 지역 관광인재 배출의 산실인 경남대학교와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통영시 관계자는 "2022년 추진한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하여 해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노력할 예정이며, 2023~2024 한국방문의 해와 한산대첩축제, 통영국제음악제 등 축제와 연계한 이벤트 추진, 그리고 지난해 대한민국 제1호로 선정된 야간관광도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글로벌 야간관광도시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용준기자



남해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미조' 기획전

- 예기치 않는 장소에서 구름을 불러낸다
- 작가 베르나우트 스밀데의 국내 첫 전시 개최

남해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미조' 기획전이 2월 11일 오프닝 이벤트에서 구름 시연 및 작가와의 대화 개최 등 2023년 4월 17일까지 전시 구름을 만드는 아티스트 베르나우트 스밀데의 작품세계가 남해 미조항 바다 앞에 위치한 대규모 복합문화공간 '스페이스 미조'에서 펼쳐진다.

베르나우트 스밀데(Berndnaut Smilde) 작가는 예기치 않는 장소에 구름을 만들어내며 공간을 더욱 강렬하게 만든다. 2013년 칼 라거펠트, 도나텔라 베르사체, 돌체앤가바나와 협업하였고 그의 실내 구름 작품인 「Nimbus series」는 2012년 타임지가 선정한 위대한 발명품에 선정된 바 있다. 베르나우트 스밀데 작가는 구름 머신을 이용하여 공간의 온도, 습도를 계산해 구름을 생성하고 구름이 만들어진 찰나를 촬영하는 실내 구름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베르나우트 스밀데가 한국에서 첫 전시<SUBLIMATION 승화: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기화되는 현상>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구작과 신작

을 함께 만날 수 있다. Nimbus 시리즈만이 아닌 지구 정반대의 위치에서 채취한 토양을 활용한 Antipode 작품과 Breaking Light 작품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우리가 순간과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일상의 구름과 무지개, 발을 딛고 있는 토양을 새롭게 마주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박물관, 교회, 도서관 등의 공간을 캔버스로 사용하여 구름을 만드는 그의 작품은 5~10초간 존재하다 사라진다. 구름이 만들어지고 사라지기 전까지의 찰나의 순간을 사진에 담아 영속성을 부여한다. 이번 전시는 노경 사진작가와 함께 작업할 예정이다.

사진으로만 관람 가능한 작품을 2월 11일 오후 2시, 단 하루 전시 오프닝 행사에서 작가의 구름 제작 시연을 통해 실제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오프닝 행사에서는 구름 제작 시연과 작가와의 대담, 전시 관람과 뒤풀이가 준비되어 있다.

오프닝 행사 참가신청은 스페이스 미조 인스타그램(@space.mijo)을 통



해서 가능하며 '스페이스 미조'의 영

주 화요일, 수요일 휴무이다.
입시시간은 11시부터 19시까지이며, 매

이용준기자

전북도,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로 도민 안전 최우선

새로운 위험·재난 상시 대비 위해 현장 작동 시스템 강화

전북도가 2023년 도민안전 비전을 '365일 선제적 재난관리, 안전한 전라북도'로 정하고, 4대 목표를 3일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2023년 안전전국 구현을 위해 ▲새로운 재난 선제적 대비,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생활 속 안전수준 향상,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 4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시군·유관기관·연구기관·민간단체·학계 등과 역량량을 모을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풍수해, 화재, 교통, 감염병 등 40개 재난 유형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종합계획인 '2023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12월)하고, 총 1조 780억원을 투입해 노후시설 정비, 재해예방사업 추진 등 안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예방 및 대비> 먼저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안전점검 1,500여 개소, 시설물 안전점검 및 시기·계절별 안전점검 등 288개소를 실시해 안전사각지대에 있는 재난취약 시설물 위험요소를 발굴·개선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전주 한옥마을·객사 등 건축규제로 재건축이 어려운 지역에 있는 노후건축물과 구조적 결함 등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 140개소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 안전 위험도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로 인해 잦아지는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 최소화를 위해 154개 지구(1,438억)에 대

한 재해예방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고, 여름철 침수우려 취약도로로 자동차단시설(5개소), 겨울철 자동제설장치(71개소) 등 안전시설물도 확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군·민간 합동으로 재해예방사업 조기 추진단을 구성 운영하면서 설계 컨설팅, 행정절차 신속추진, 예산집행 제고방안 등을 추진하고, '24년 신규사업 발굴 등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응 및 복구> 또한 재난발생이 예상되거나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가동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도 선제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시군, 경찰, 소방, 유관기관 간 상시 재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수시로 정보공유망 개설과 함께 각 시군 등에 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신속한 조치활동을 펼친다는 각오다.

또한, 재난 피해시 신속한 수습과 예비비 등을 통한 재난지원금 지급, 복구 활동으로 일상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준공한 재난관리지원 통합관리센터도 하반기 중에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센터는 올해 도비 8억원을 투입해 재난관리지원 비축물품 70여종(복구지원, 구조장비, 구급장비, 생활지원 등)을 구입할 예정으로 도내 전 지역 재난 사고 수습·복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민 생활과 밀접한 안전관리 활동 강화>

전 도민의 안전역량을 높이고 생활 속 안전문화 개선을 위해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180백만원) 등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추진한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23.1월)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 육성 등을 위해 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한다.

도는 도내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과 함께 재난안전 제품·기술 시험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공모사업 대응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기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에서 5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내 대상업체 및 종사자가 사전에 법적 안전보건의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홍보도 적극 펼칠 예정이다.

경찰 단속활동도 강화된다.

기획수사, 합동단속, 도·시군·경찰과 공조체계 강화 등을 통해 식품위생, 환경, 청소년 등 민생안전 9대 분야에 대한 단속 및 수사를 강화하고, 주로 여성·청소년·서민 등 사회적 약자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에 수사를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허전 도민안전실장은 "요즘 재난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순식간에 일어나고 있으며, 안전을 위한 많은 노력과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도민 요구 수준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며 "지난해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자연재난, 사회재난 등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기 위해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집중안전점검 우수기관 표창, 안전교육문화진흥 시책추진 우수기관, 자연재난 대책 추진 우수기관 등 뛰어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11월까지 공예·요리체험 등 진행,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기대'

정읍시가 미래농업을 이끌 지역 내 학생들에게 농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오감 만족 농촌 체험학습'을 추진한다.

'오감 만족 농촌 체험학습'은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상은 교육을 희망하는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다.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며 정읍시가 육성한 농촌 체험교육 농장 12개소에서 회당 20~30명 이내의 규모로 45회 진행될 예정이다.

체험학습을 희망하는 교육기관이나 단체는 2월 말까지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차량 임차료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곤충의 한살이와 생태 체험, 아트북 교실, 흙과 꽃, 자연에 대한 이해, 타조 생태 관찰과 타조알 공예 체험, 농작물 수확과 요리 체험 등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촌 체험을 통해 농업·농촌의 유익한 가치를 배우고, 자연스레 농업에 관심도 가지게 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영농 후계 세대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MZ세대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정읍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하은/기자



이남출/기자

순천시, 소상공인 대상 150억 원 규모 대출 지원

순천시가 경기불황 및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보충대출사업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사업을 2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시행한다.

융자한도는 업체당 최대 3천만원이며, 2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대출금 이자의 최대 3%까지 2년간 보조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순천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 보충사업은 지난해 일반보증은 약 115억원 451개소, 특별보증은 약 16억원 60개소가 보증지원을 받았고, 이차보전사업은 총 4566개소에 7억8천만원의 이자가 지원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남신용보증재단 및 5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순천신협, 순천중앙신협)과 융자금의 기간, 대출금리 산정 방법 및 종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사항에 따라 소상공인은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지원 신청은 6일부터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에서 접수가 가능하며, 10일까지는 신청 인원이 물릴 것에 대비해 요일별 5부제로 접수를 한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계속되는 경기악화와 고금리 상황에 보충대출 및 이차지원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사항은 순천시 소상공인원스톱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수/기자



남원 스마트관광도시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습니다!

남원시는 오는 2월 7일 오후 3시 남원스위트호텔 스위트홀에서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시민 의견 청취 마당'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본 행사는 남원 스마트관광도시를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스마트관광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마련된 자리로, 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은 관광과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관광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스마트관광 생태계 구현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남원시는 2022년 관광명소형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대상지로 선정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전라북도의 지원을 받아 광한루원 일원에 4년간 105억 원을 투입하여 관광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아침부터 한밤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테마와 스토리 구성을 가진 도시로 변모하며, MZ세대 취향에 맞춘 전통문화 이색 체험 서비스와 한국인의 흥과 열이라는 감성 문화서비스를 늦은



밤까지 제공하여 체류형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안민웅 남원 스마트관광도시 운영위원장은 "시민

의견 청취 마당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진안군 신활력플러스, 시작을 넘어 도약으로!

진안군이 헬스푸드 아카데미 2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헬스푸드 아카데미는 진안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한다.

교육 대상자는 홍삼·곤충·약용작물과 연관된 사업을 시작하려는 진안군 주민들로 군은 생산·가공·마케팅·창업 등에 관한 기본교육 및 심화교육, 전문가 컨설팅 등의 과정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진안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진안군원 헬스푸드 플랫폼 구축'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운영하며 지난해 본격적인 첫발을 내디뎠다. 1년여간의 추진 결과 주민공동체가 8개 조직되고, 이들 모두가 예비법인을 세우는 데 성공해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

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 시작하는 2기 헬스푸드 아카데미는 오는 10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2월 중순 개강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까지 수강 희망생 중 청년층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욱 다양하고 참신한 형태의 액션그룹이 생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현희 농축산유통과장은 "홍삼, 약용작물, 곤충을 활용한 사업을 시작하려는 진안군민 여러분이 신활력플러스사업 헬스푸드 아카데미를 통해 창업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 조직을 구성하여 지속 가능한 사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진안군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수/기자

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와 함께해요

김제시가 육성하는 사단법인 김제시 귀농귀촌협의회는 지난 2월 3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대보름 전통음식 및 부럼나눔 행사를 김제역 광장과 역사 내부에서 펼쳤다.

김제시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주민들과 김제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정월 대보름에 대한 전통의 의미를 되새기고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노력과 지역주민과 화합하고 정을 나누고자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를 이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재능기부차원에서 재능기부단 주도로 웃놀이, 고무신 던지기 등 전통놀이 문화를 재연하고 함께 참여한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통음식 오곡밥과 관음나누어 줌으로써 관심을 끌었으며 200여명이 참여했다.

(사)김제시귀농귀촌협의회 김태양 회장은 "김제시 지역주민 및 김제시를 방문한 관광객이 즐거운 대보름을 보낼 수 있도록 올해의 행사를 기획했다"며 "귀농귀촌협의회가 지역사회에 먼저 온정을 나누고 활력있는 농촌 문화를 만들고 김제시가 귀농하기 좋은 전국 최고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한해 농사의 풍요와 안정을 기원하는 정월대보름 풍습인 오곡밥을 나눠먹고 부럼을 깨는 등의 전통문화를 재연하여 우리

문화를 계승하려는 시도가 돋보이며 우리시 귀농귀촌협의회가 나서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함으로써 정을 나누고 활력있게 하는 등 시민들에게 즐거운 우리나라의 명절을 선물해 준 것에 감사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태/기자



익산시, 도내 최초 온라인 민간기록 수장고 '본격화'

'익산시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착수 보고회 개최

익산시가 주민들의 지역 내 일상 생활과 세대 간 역사를 담은 도내 최초 민간기록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본격 구축한다.

시스템이 개통되면 누구나 실시간으로 익산 자료를 쉽게 접하고 직접 이용할 수 있으며, 주제·시기별 범주화 및 소장기록물 컬렉션 온라인 전시까지 관람할 수 있게 된다.

3월 시에 따르면 익산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착수보고회가 시청 상황실에서 민간기록관리위원회 문이화 위원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착수보고회는 사업 추진 목표와 수행 계획 발표 및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 및 관련 부서 의견 수렴 등으로 이뤄졌다.

'디지털 아카이브(Digital Archive)'란 각종 자료나 소장품을 디지털 정보로 바꿔 보존하는 시스템으로, 시의 역사를 집대성하는 온라인 수장고라 할 수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수집 기록물 현황 조사 및 DB 구축 ▲익산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기록화 아카이브 서비스 구현 등이다.

익산 관련 기록물의 디지털화로 도시의 역사,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사라지거나 소실될 우려가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있는 익산의 기록을 영구 보존하여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익산의 정체성·역사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선수/기자

진도군, 국비 공모 예산확보 '총력'

국가 공모사업 대응 보고회 열어...76개 사업 1,367억원 확보 총력 다짐

진도군이 '국가 공모 사업 대응 보고회'를 개최하고 국비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 3일 군청 회의실에서 김희수 진도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핵심과제·공약사항 등과 연계한 공모사업 응모로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공모사업 등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보고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이 주인, 살기좋은 진도군 발전을 위한 신성장 동력사업,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대규모 공모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고회를 통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 ▲농촌공간 정비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특용작물생산시설 현

대화 사업 등 진도군의 미래 발전과 군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76개 사업 총 1,367억원의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진도군은 이날 보고된 공모 사업에 대해 중앙부처와 전라남도 정책 방향에 맞춰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부서간 협업 체계를 통한 공모사업 상시 발굴 체계 구축·운영에 나갈 방침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가 공모 사업 확보를 위한 첫 걸음을 시작했다"며 "국정과제, 전남도정 시책을 중심으로 우리 군 현안 사항과 연관된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공모사업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경호/기자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군민 품으로

김순호 군수,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협의회'에 참석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는 2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열린 '국가·지자체간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인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의 무상양여를 확정받았다.

이날 협의회에는 7개 광역 부단체장, 4개 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으며 유류·저항용 상태의 국유재산의 매각 및 활용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김순호 군수는 구례읍사무소로 활용 중인 국유재산(경찰청)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구례읍사무소 건물은 구례군 소유로 되어 있으나, 부지에 대해서는 국유재산(경찰청)으로 되어 있어 부지에 대한 군 소유로 등기이전에는 구례군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구례군에서는 2차례에 걸쳐 경찰청에 요청했으나, 양여 당시의 부지 면적과 현재 면적이 상이하여 양여를 보류했다. 구례읍사무소 현재 부지는 구례읍 봉동리 295-1번지이지만, 1964년 양여 당시에는 2필지(300-8, 295-1번지) 중 대표 번지가 300-8번지로 되어 있었다. 이후 토지의 분할, 합병이 여러 차례 이루어져 부지 사용 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웠다.

이번 협의회에서 김 군수는 청사부지의 연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확보해 무상양여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구례읍사무소 부지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양여 요건을 갖췄다는 주장을 펼친 결과 국유재산관리 총괄청인 기획재정부로부터 무상양여 결정을 이끌어 냈다.

이로써 구례군은 공시지가 기준 약

20억 원 상당의 국유재산 부지를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군에서는 2004년 12월 등록문화재 제120호 지정받은 구례읍사무소 건물에 보존 가치를 유지하고 청사를 공공용으로 계속하여 활용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60여 년의 군민 숙원사업이 이루어져 매우 감격스럽다"라며 "협의회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상설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국유재산 및 공공기관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함으로써, 재정 부담 절감과 동시에 공공시설 확충·주택 공급 등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정책 수단의 외연 확대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성현/기자



▲ 구례읍사무소 청사 부지 군민 품으로

해남군 "공모사업으로 예산확보 답을 찾아라"

공모사업 확보 꾸준히 증가, 지역현안 해결 성과 특출

해남군이 지방재정 확충과 균형 현안과제 해결에 큰 효과를 거두고 있는 공모사업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전남 여수에서 2023년 공모사업 대응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해남군 공모사업 실무자 3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과 함께 2023년 정부예산안 분석 및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발표 등의 실무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해남군은 지방소멸위기와 고령화사회 등의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공모를 통한 사업 예산을 확보와 현안 사업 유지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투어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대비하기 시작한 추세이지만 해남군은 2020년 공모사업TF팀을 신설,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해 왔다.

해남군 공모사업 선정은 최근 3년간 총 360건, 총사업비 4,656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농촌협약, 김치원료 공급단지 조성사업, 지역거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등 130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1,59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민선7기가 출범할 당시인 2017년 43건, 200억원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로,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 장기 성장동력 확보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군은 공모사업이 집중해 있는 3~4월 이전에 워크숍을 개최해 선제적으로 공모사업에 대응하는 등 올해도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민선 7기부터 본격적으로 공모사업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중앙부처 등의 공모사업에 참여해 온 결과 역대 최대 성과를 거두며 예산확보와 균형 현안사업 추진에 동력을 만들어 왔다"며 "올해도 우리군에 꼭 필요한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광남/기자

전남도 김영록지사, 한파·난방비 폭등...민생행보 잇따라

3일 목포 복지기동대 집수리 가구·반려로봇 지원가구 등 살펴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새해 중앙부처 방문, 지역 현안사업 해결 등 바쁜 일정에도 틈틈이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을 보듬는 민생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3일 목포 독거노인 2가구를 방문해 어려움을 직접 살피고 위로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장성 독거노인 가구, 29일 곡성 저소득 한부모 가정 현장을 잇따라 방문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기 위해 현장방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겨울철 어려움이 가중되는 위기가구를 찾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집수리 현장 가구를 찾아가 난방 상황 등을 살피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동절기를

대비해 지난 12월부터 2월까지 노인 가구를 중심으로 집수리를 집중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까지 목표(1천 가구)를 훨씬 웃도는 1천223가구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을 늦추지 않고 2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2019년 4월 출범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지금까지 총 9만 268가구에 148억 원을 지원했다.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록 지사는 또 큰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차에 인공지능(AI) 반려로봇 효도이를 보급받은 독거노인 가구도 둘러 건강 상태를 살피고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다.

김영록 지사는 "저소득 한부모가



정과 홀로 사는 어르신 5만 5천 가구에 예비비를 긴급 투입해 가구당 20만 원씩 총 111억 원, 경로당 9천212개소 148억 원, 사회복지시설 879개소 5억 원 등 총264억 원의 난방비를 지원했지만, 열악한 취약계층의 두터

운 보호를 위해 추가적인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민생을 최우선으로 두고 어려운 도민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해명/기자

장흥군, 청렴 실천 다짐 "행정 신뢰 높인다"

장흥군은 지난 1일 '공직자 청렴·친절 다짐대회'를 개최하고 2023년 청렴도 향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청렴·친절 다짐대회는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반부패 청렴실천 및 친절 실천 의지를 다지고자 개최됐다.

이날 다짐대회에서는 김성 장흥군수의 청렴·친절 서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공직자 대표가 실천 결의문을 전직원 앞에서 낭독했다.

공직자들은 원칙에 따라 투명한 직무수행에 나설 것과 직위를 이용한 갑질근절 및 고품·향응 수수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같이 했다.

장흥군은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청렴 학습시스템 운영, 소통문화 만들기 등 다양한 반부패·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 군수는 "모든 공직자가 청렴과 친절을 생활화해 신뢰 받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직원

소통을 강화해 내부청렴도를 높이고 청렴도 상위 등급을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원/기자

나주시, 청렴도 하락에 '분골쇄신'... 특단 대책 수립 나서

윤병태 시장 전제 간부공무원 소집, 대책회의 주재

전라남도 나주시가 2022년 청렴도 평가 결과에 따른 깊은 반성과 함께 분골쇄신의 각오로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나주시는 지난 달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측정 평가 결과 5등급을 받았다.

2일 시에 따르면 권익위는 공공기관 등 569곳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청렴체감도'(60%), '청렴노력도'(40%), '부패실태'(감점) 등을 종합·평가해 1~5등급을 매겼다.

청렴체감도 조사 기간은 지난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청렴정책추진 실적과 효과성, 업무 연관 민원인과 내부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여기에 2021년 불거졌던 환경미화원 채용 비리, 내부 갑질 등이 부패실태 항목에 반영되면서 종합점수 감점 요인으로 작용했다.

나주시는 지난 1일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윤병태 시장 주재로 부시장, 국·소·실 전제 간부공무원, 읍·면·동장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도 향상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윤병태 시장은 감사실 소관 2022년 청렴도 하락 원인과 개선 대책을 청취한 뒤 자율 토론, 의견 개진을 통해 간부공무원들과 진솔한 대화를 주고 받았다.

또 청탁 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출선수범 실천을 결의하는 청렴서약 시간을 갖기도 했다.

윤 시장은 "우리 시의 얼굴이자 종합평가 척도인 청렴도가 낮게 평가돼



시민들께 매우 부끄럽고 송구한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닌 모든 구성원이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분골쇄신의 각오와 개선 의지를 갖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대책회의를 하는 이 순간에도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상급자부터 통렬히 반성하고 청렴도 평가 항목과 결과를 제대로 숙지해 내년 평가에서 다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가자"고 독려했다.

자율 토론에서는 외부·내부 청렴체감도 향상을 위한 의견이 다양하게 오갔다.

먼저 외부 청렴도 향상 방안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민원일수록 더욱 친절히 응대하기', '공사·용역·구매·인허가·세무 등 신속한 민원처리와 사후 모니터링 철저', '각종 지원·보조사업 평가기준 투명 공개' 등이 제안됐다.

공직사회 내부청렴도 개선책으로는

'신규 직원·2030세대 직원 간 상시 소통 및 반말 지양', '인사 시기 정례화 및 고충 적극 반영', '6급 퇴장 등 직급 관계없는 형평성 있는 업무 분담', '직원 결원 보충', '건강증진의 날 운영 활성화' 등이 다뤄졌다.

시는 이번 대책회의를 시작으로 청렴담당관을 배치하고 업무 전반과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변화와 혁신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 내부 컨설팅, 청렴조례 제정과 공사·용역, 인·허가, 보조금 지원 등 업무 경험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윤병태 시장은 "시장의 고객인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적극적으로 친절한 응대, 신속한 처리와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인사철 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상시 수렴하고 직원 건강관리 등 내부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 수립에 힘써가겠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화순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화순군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비대면 신청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받고, 방문 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읍, 면에서 접수 받을 예정이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17~19년도 공익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되어 신규 대상자가 대폭 증가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농업인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 검증 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농업인에게는 공익직불금 사전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그 외 공익직불금을 신청하는 일반 농업인들은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여 자격 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해야 한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자격 요건 검증이 이미 처리된 농업인의 경우 사전 신청 안내 문자를 통해 2월 28일까지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다.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직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 접수한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 기간에 농지소재지 관할 읍, 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농업인 교육 이수, 마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 보관, 폐경, 묘지, 정원 등 농업에 이용되지 않는 면적 신청 등 7개의 농업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월~4월)신청접수, (5월~9월)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10월) 지급대상 금액 확정 후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화순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17~19년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지 조건이 삭제됨에 따라 기존에 수혜를 받지 못했던 농업인들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신규대상자에 한해서는 반드시 농지소재지 이상 및 농업인 2인(총 3인 이상)으로부터 경작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 지분의 지급대상 농지 1000㎡이상 직전연도에 타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하는 등 다양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니 꼭 신규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윤경호/기자



김진태 강원도지사, 이종섭 국방부장관과 군납 수의계약등 접경지역 현안 논의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월 3일 국방부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을 만나 군납 수의계약 유지, 미활용 군용지 처분 등 접경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강원도 소재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첫 근무를 시작했고, 양구 2사단장을 역임하는 등 강원도에서 총 세 번을 근무한 인연이 있어 강원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원도 현안에 대해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며, 강원도가 건의한 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상호 논의한 내용은, ① 군납 수의계약 70% 유지 및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한 지속 납품 방안, 접경지역 농산물을 우선 사용한다는 원칙하에 접경지역 농업인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수의계약 70%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5년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김치 원료인 무·배추 납품가격에 대하여는 가격 결정에 직접 관여는 어렵지만 지역 농산물 가점부여 등 해결방안을 찾기로 함.

② 미활용 군용지 처분 및 활용(특히 공공사업 추진 시 지자체 우선 매각 허용) 방안

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언급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토록 할 예정이며, 특히, 국방부의 입장과 예하부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를 줄여나가면서, 지자체에서 요구 시 적극 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고, 군(軍)에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예산확보를 확대하여 점차 매입을 늘려가기로 함.

③ 접경지역 민통선 및 군사보호구역 등 조정 방안
민통선 조정에 따른 지뢰제거 등 많은 문제가 있지만 민통선으로 인한 지역 발전·개발 등에 유연히 대처하고 강원특별자치도 특례조항에 담겨진 내용을 최대한 잘 검토하기로 함.

④ 민·관·군 상생협업체 활용 방안
접경지역 현안문제 해결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운영해 온 '민관군 상생협업체'를 현장 중심의 기구로 활성화하여 적극 활용하기로 함.

한편, 국방부장관은 배석한 국방부 담당국장에게 강원특별자치법 국방부 소관 특례안에 대해 실국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동원/기자

영월군 재해위험 개선사업에 대규모 국비예산 확보

영월군은 2023년도 재해위험 개선 사업으로 8개 지구 국비309억, 지방비309억 등 총 61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상습 침수지역 개선, 위험교량 재가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 등 재해위험 요소 해소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어 338억을 확보한 쌍용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쌍용지역 일원 농경지 및 주택 침수, 유실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실시계획 완료 및 사업 착수하여 2025년 최종 준공할 계획이다.

팔호교 재가설(201억), 별말천 소하천 정비(24억)사업은 2022년 실시계획을 완료 금년 3월 본격적으로 사업 착공하여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해소할 계획으로 주민피해 및 통행 불편 사항을 해소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이

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해소사업은 낙석사고 및 사면붕괴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영월읍 정양지구를 포함한 총 5개 지구에 대하여 총 54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 중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도로법면 사면 안정화로 차량 통행 안전사고 예방 등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집중호우 시 수해우려로 밤잠을 설치셨던 지역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은 물론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중앙정부로부터 국·도비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동원/기자

철원군, 철원예총 국악협회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철원예총 국악협회 대보름맞이 지신밟기 행사'가 2월 3일 신철원전통시장과 군청 앞 광장에서 열렸다.

지신밟기는 집터에 머물러 있는 지신을 달래 집 안으로 들어오는 액운을 제거하고 복을 불러 가족과 가정의 안녕을 기원할 목적으로 새해 정월 초이튿날부터 열셋새 사이 올리는 제형식의 민속놀이이다.

철원문화재단과 (사)한국예총철원지회 철원국악협회가 주최·주관한 이날 행사는 철원 지역내 3개 연합 풍물패와 철원예술단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신철원 전통시장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군청 앞 길놀이도 열렸으며, 소통과 화합, 평화를 염원하는 사자춤이 펼쳐져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대보름 세시풍속 고사상 나눔 행사에 동참한 이현종 철원군수는 "액운을 없애고 한해 풍년을 기원하는 대보름맞이 행사를 통해 군민 여러분들의 안녕을 기원한다"며 "코로나19 이후 다 함께 모여 뜻깊은 민속행사를 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이세나/기자

철원군, 농촌체험관광 사업으로 농가 소득 제고

철원군은 농업·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 발전과 농가 소득 제고를 위하여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2023년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촌체험관광 사업은 농촌체험마을, 농장 등에서 체험, 식사, 농특산물 구입 등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한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 및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철원 관광산업 발전에 따라 증가하는 관광객에 농촌자원으로의 관심 및 농특산물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자세한 사업목록 및 사업내용 등은 철원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철원군 방문 전 신고서(여행계획)를 제

출하되, 여행객은 철원군 이외 주소지여야 한다.

지일금 신청은 여행 후 방문이나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담당자가 조건 충족여부를 확인 후 지급하게 된다.

김재국 농업유통과장은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관광산업이 활력을 얻고 있는 시점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통해 농업농촌으로의 관광객 유치의 효과와 함께 농업인 소득 증가 효과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블거리 줄길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철원군에 방문해 여행의 행복감을 물론 여행비 지원의 이득도 챙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나/기자



동해시, 무허가 위법건축물 점검 강화 등 본격 정비 착수

동해시가 위법건축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징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민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 개조 등으로 화재 위험요소가 높은 만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도시미관 저해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불법건축 및 용도변경 등 총 91건의 위법건축물을 적발하고 철거완료 및 추인(사후허가, 신고 등) 등 33건을 정비 했으며, 58건에 대하여는 현재 시정조치가 진행 중이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57건을 대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 처분을 통하여 58백여만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는 올해 건축과 직원 5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대진과 평릉, 어달 일대 등 최근 사용승인된 신축건축

물과 지난 2021년 일제조사를 실시했던 북평공단 위법건축물을 비롯하여 화재안전조사 결과 위반으로 통보된 건축물 및 미시정 건축물 중심으로 일제 조사를 통한 상시 예방 정비활동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위반사항 확인 후 해당 건축주 및 행위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등 자진정비를 유도하는 한편, 자진정비 미 이행시 부과하고 안내 후 이행강제금 부과와 함께 위법건축물 관리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등 위법건축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속행 건축과장은 "위법건축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위협받는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품격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강릉시, 계묘년 시민무사안녕과 풍년농사 기대합니다!

강릉시 농업인단체협의회(회장 김성기)는 희망찬 계묘년 새해를 맞아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인하여 약식으로 진행해왔던 '풍년농사 기원제'의 전통을 다시 이어간다.

해마다 열리는 풍년농사 기원제는 한 해 농사의 풍년과 시민의 무사안녕을 염원하고 농업인의 화합을 도모하는 상징적인 행사로, 농업인 280여 명과 2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3일 통일공원 공군전시관 주차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는 21개 읍면동 농업인 단체 회장들과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

여 농사 정보를 공유하고, 김홍규 강릉시장과 김기영 강릉시의회 의장 및 관내 농업 관련 기관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화합과 소통의 자리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하나 된 마음으로 평온하고 재난·재해가 없는 한 해로 만들어 달라는 염원을 담아 천지신명께 정성껏 제를 올린다.

강릉시농업인단체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동안 한자리에 모이지 못해 아쉬웠으나, 기원제를 통해 모아진 기운과 소망이 올해 농사를 지탱하는 힘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동원/기자

'티끌 걸음 모아 와와페이로 받으세요' 정선군민 걷기 활성화 추진

정선군이 일상 속 걷기 실천을 통해 군민들의 심신과 건강을 지키고자 걷기 마일리지, 걷기 동아리 지원, 다달이 알맞이 걷기 등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기반으로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걷기 프로그램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장기간 운영 중인 챌린지 "정선군 걷기 마일리지"는 1월부터 11월까지 기간 내 하루 최소 5,000걸음(100원)에서 최대 10,000걸음(200원)이 적립되어 1만 마일리지 이상 달성하면 와와페이 또는 정선아리랑상품권(연 10,000~60,000원)으로 지급한다.

또한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끼리 걷기 동아리로 참여하는 "걷기 동아리 지원"챌린지는 팀전 형식으로 100

일간 7만보를 달성한 팀에게 성공물을 제공하며, 챌린지 종료 후 최다 걸음왕과 최다평균걸음팀에게는 한정 제작한 기념패지와 포상금을 제공하여 정선군 걷기 분위기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보건사업과 지역 축제를 연계하여 홍보뿐만 아니라 정선군 구석구석을 찾아 걸으며 국민고향 정선에 대한 관심도를 고취시키고 건강까지 지키는 1석 3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다달이 알맞이 걷기"챌린지도 진행하고 있다. 군은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의 전용 걷기 커뮤니티 개설을 통하여 마을 길을 탐방하는 소소한 걷기와 걷기 좋은 길 발굴 등 주민들이 직접 걷기 친화적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사업의 기반이 앱 플랫폼이기에 각

보건지소·진료소 담당자 사용 교육 실시하여 내부 역량 강화와 스마트폰 사용이 취약한 어르신들 위해 농한기 경로당을 순회 방문하여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및 앱 설치로 어르신들도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는 걷기 생활화를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걷기지도자 양성 교육, 건강 계단 조성, 유관기관 걷기 환경 간담회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애정 보건소장은 군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일상생활 속 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영/기자



대학교 학비 방값 걱정 제로, 화천군의 변함없는 교육지원



화천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전폭적 교육지원이 새해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3일까지, 2023년 1학기 지역인재 지원 대상자를 선발한다.

지원 조건은 학생의 부모 또는 실질 부양 보호자가 주민등록 기준 3년 이상 화천에 실거주하는 조건이면 된다.

부모 소득 기준은 없으며, 국가 장학금과 교내 장학금 등을 제외한 등록금 실납입액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 신입생은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이 미적용돼 전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성적 평점 2.5점(4.5점 만점 기준)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실납입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학기 당 100만원이 일괄 지급된다.

또 대학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위해 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원룸, 기숙사 등의 거주비 실비 100%가 지급된다.

해외 우수대학 진학생들과 재학생들에게는 부모의 납부 소득세 규모에

따라 특별 지원금이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화천권역은 화천군청 교육복지과, 사내권역은 사내도서관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며, 등기 우편접수는 화천군 인재육성재단 사무국(군청 교육복지과)으로 하면 된다.

최문순 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사람이 곧 화천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에만 집중하며,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 통큰 창업사랑 100억!

2023년도 지방소비세 이자 수입 전액 창업 활성화에 투자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2월 2일 오후 4시 청주 성안길에 위치한 창업스타터움(국민연금공단 2층)에서 개최한 충북 창업노마드포럼에서 2023년도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 지정되며 발생하는 이자수입 100억원 전액을 충북도 창업활성화를 위한 스타트업에 사용할 것임을 밝혔다.

충북창업펀드 1000억과는 별도로 충청북도에 소재한 창업가 및 기업들에게 투자할 계획으로 젊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지 않고 용기를 갖고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떠나지 않고 찾아오는 청년창업으로 충북의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켜 매년 감소해가는 충북의 출생률과 인구소멸의 위기를 극복 하는데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하며 또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스마트농업, 이차전지, 반도체, 배터리, 수소·탄소중립 등 충북이 지향하는 미래산업의 발전

에도 큰 기초가 될 것으로 본다.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은 어떠한 정책이나 법칙에 구애받지 않고 이동하며 삶을 정주하는 유망민처럼 충북 창업생태계의 도약을 위하여 충북의 창업 주체들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영환 충북도지사의 아이디어로 시작됐다.

포럼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 및 투자하며 창업활성화에 필요한 강연, 간담회, 기업탐방, 글로벌 IR, 투자경진대회 등 프로그램을 기획 및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 노마드포럼은 매월 첫째주 목요일에 정례적으로 열릴 예정으로 도내 시군을 다니며 테마를 가지고 운영할 예정이며 오프라인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메타버스 플랫폼인 게더타운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고정화기자

진천군, 환경·에너지 사업으로 탄소중립도시 실현



진천군이 환경·에너지 분야의 로드맵 수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나서고 있다.

군은 민선8기 국정 핵심 사업 중 환경 및 에너지 분야의 마스터 플랜을 수립했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ESG 군정도입 종합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올해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른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국비 7천만 원을 포함한 1억원의 예산도 확보한 상황이다.

군은 총출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향후 일관되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 실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친환경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에너지 자립률 50% 달성을 목표로 각종 신재생에너지 보급, 유지보수 사업과 관련 기반 조성사업 등을 적극 추진한다.

진천군은 발 빠른 대응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미래도시 구축에서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충북 태양광산업 특구로 지정된 진천군에는 태양광 모듈을 생산 중인 한화큐셀 기업 입주를 시작으로 충북혁신도시 내 태양광기술센터 등의 연구시설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인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들어섰다.

더욱이 태양광 폐모듈 재활용센터 등 태양광 자원순환 기반시설까지 마련돼 있다.

군은 이러한 기반 시설을 바탕으로 올해 지역 주민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31억원, 태양광 등의 시스템 제조검증 기반구축 및 인재양성사업에 13억원, 태양광 사후관리를 위한 유지보수사업에 18억원 등 지역 신재

생 에너지 활용 기반에 총 62억 원의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덕산 신척저수지의 수질개선과 군민을 위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 총 100억 원을 들여 추진 중인 '진천군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도 오는 3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이와 연계한 '생거진천 에코머니 사업'이 웹페이지 구축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홍보와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생거진천 에코머니는 진천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친환경 활동 내역을 웹페이지에 사진으로 등록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 후 공기정화식물로 교환해주고 있다.

군민들이 일상 속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친환경 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탄소중립 생활 환경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군은 환경 분야 조직 강화를 위해 신설한 '기후대기팀'을 중심으로 총 49억 원을 투입, 미세먼지 저감을 포함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중소 대기배출 사업장 연료전환 △불법배출 감시원 운영 △저공해(LPG)차량 구입지원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운영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의 사업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환경분야와 에너지분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며 "명확하고 실현가능한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도시를 조기에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충남도, 김동완 4-H연합회장 연임...농촌발전 '박차'

3일 '충청남도4-H연합회 연시 총회' 개최...임원 이취임식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3일 기술원 대강당에서 충청남도4-H연합회 회장 이취임식 및 연시 총회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4-H연합회 임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별 행사는 제66대 임원 인준서 수여, 임원 이취임식, 공로패·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이취임식에선 지난 1년간 4-H연합회 경쟁력 강화와 유능한 청년 농업인 영입에 힘써 농촌 활력 증대 및 발전에 이바지해 온 김동완(서산) 회장이 연임해 제66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부회장에는 박상철 보령시연합회 회장과 임성환 홍성군연합회 회장, 감사에는 서천군연합회 회장, 예산군연합회 회장을 각각 역임한 바 있는

차종원 씨와 정명진 씨가 선출됐다.

총회에서는 4-H연합회와 관계자간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교육 및 도야영대회 등 앞으로 추진할 행사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연이어 4-H연합회를 이끌어 갈 김 회장에게 격려와 기대를 전하며 "도정의 제1과제는 농업이고 농업의 중심에는 청년들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고 농촌의 고령화를 해소할 핵심 열쇠는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농촌 연금제 도입, 주거환경 개선, 스마트팜 조성 등 우리 농업을 혁신하는 길에 4-H연합회가 함께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정근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신정호 아트밸리'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산시, '신정호 지방정원' '남산근린공원(1단계)' 조성 본격 추진

아산시가 아트밸리 아산의 문화예술 플랫폼이 될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과 '남산근린공원(1단계) 조성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에 나선다.

총사업비 255억원(도비 15억, 시비 240억)이 투입된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지난해 12월 1일 박경귀 아산시장과 많은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착공식을 시작으로 현재 가설 펜스를 설치하고 지장물을 옮기는 등 해빙기 공사 준비가 한창이다.

2024년 충남도 제1호 지방정원 등록을 목표로 추진되는 신정호 지방정원 조성계획은 크게 신정호 정원(Flower Garden), 생태체험 정원(Eco Garden), 연꽃정원(Eco garden)으로 나뉜다.

신정호 정원(Flower Garden) 구역(자전거 대여소에서 수생식물 전시장까지)은 이번에 조성하는 실



제 사업대상지로 물빛정원, 음지정원, 덩굴식물 정원, 세계식물정원 등 주제 정원과 신정호수를 더 가까이에서 조망할 수 있는 수변 전망대 등이 갖춰질 예정이다. 특히, 공모를 통해 일부 구간에

의 또 하나의 기반 시설인 남산근린공원(1단계) 조성사업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남산근린공원(1단계) 조성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총사업비 85억원을 투입해 신정호관리소에서 인공암벽장 앞 미조성구간에 녹지와 주차장 171면을 추가 조성하는 사업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공원 접근성이 향상돼 한층 편하게 신정호수 공원을 즐길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신정호 아트밸리'는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추진하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이다"라며 "지방정원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신정호의 빼어난 자연경관과 문화예술, 시민이 함께하는 아산시민의 수변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의 본격적인 변화를 체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박경귀 아산시장 "상수도 배수지 상부 공간 활용방안 모색"

2023년도 당면업무 보고 청취 자리에서 지시



아산시가 상수도 배수지 상부 공간 재정을 통한 편안한 휴식 공간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시는 설치된 지 20년 넘는 배수지 상부 조경 및 체육시설에 대한 정비와 휴식 공간 추가 마련에 대한 시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에 맞춰 본격적으로 상수도 배수지 주변 시설 정비와 공간 활용방안을 찾기로 했다.

박경귀 아산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수도사업소 2023년 주요 사업 업무보고에서 "상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배수지를 전수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등산로에 인접한 상수도 배수지는 공적공간으로 등산객들의 쉼터 역할을 해야 한다"며 배수지 주변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설치 등 배수지 유휴공간 활용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원호기자

청주시, 정북동토성 정월대보름 축제 개최

5일 오후 2시부터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청주시는 오는 5일 오후 2시부터 정북동 토성에서 '정북동토성 정월대보름축제'를 개최한다.

이날 축제에는 연날리기와 달집태우기, 부럼 깨물기, 활쏘기 체험과 태권도시범단, 국악·풍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지역사회 화합과 청주시 발전을 지원하는 대형 창작연 날리기 시현에 이어 각자의 꿈을 담아 가오리연을 하늘로 날리는 체험을 할 수 있다. 연은 무료로 제공한다.

소원지를 달집에 달아 태우는 달집 태우기는 오후 6시부터 진행된다.

정월대보름은 우리 민족이 즐겼던 민속놀이 중 하나로써 정초가 되면 연날리기와 쥐불놀이, 부럼 깨물기, 달집 태우기 등 다양한 놀이를 통해 한해의 액을 보내고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세시풍속이다.

시 관계자는 "오랜 세시풍속인 정월대보름과 이 지역의 귀한 문화재인 정북동토성의 의미를 알기 위해 이 행사를 기획했다"며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우리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영건스 매치플레이' 사상 첫 2연패 달성했던 김근우, 2023년 KPGA 코리안투어 데뷔

아마추어 시절 6년간 국가 상비군 생활... 2019년과 2020년 '영건스 매치플레이' 2연패 '위업'

김근우는 "설레고 행복하다. 개막 전까지 열심히 준비해 한 시즌 동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싶다"며 "신인다운 패기로 자신 있게 경기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김근우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11세 때 본격적으로 골프를 시작했다. 당시 축구 선수와 골프 선수 모두를 꿈꿨지만 골프에 더 흥미를 느껴 축구공 대신 골프채를 손에 잡았다고 한다.

아마추어 시절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가 상비군으로 활동했고 중산고등학교 재학 시절인 2019년과 2020년에는 주니어 대회인 '영건스 매치플레이'에서 2연패를 달성했다. 오랜 시간 동안 국가 상비군 멤버로 국가대표 선발을 노리기도 했으나 최종적으로 태극마크를 달지는 못했다.

김근우는 "사실 아쉬웠다. 2022년에도 국가대표 명단에 들지 못하면서 골프 선수로서 방향성을 잃을 뻔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잘 이겨냈다"며 "지난해 KPGA 프로, KPGA 투어프로에 연달아 입회하는데 성공했다. 이후 'KPGA 스틱스투어'에서 활동하다 'KPGA 코리안투어 QT'에서 좋은 성적을 냈다. 꿈만 같았다. 이제는 프로 선수로서 좋은 성적을 내고 싶은 마음뿐"이라고 되돌아봤다.

김근우는 본인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선수'라고 소개했다. 위기 상황을 맞이해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최대 장점이라고 이야기했다.

김근우는 "정신력이 강하다. 그러다 보니 잘 버틴다.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계 부는 날씨에 경기를 하는 것



도 힘들지 않다. 오히려 맑을 때보다 스코어가 더 좋을 때도 많다"고 웃은 뒤 "클러치 능력은 부족하다. 찬스를 맞이했을 때 승부를 결정짓는 퍼트 성공률이 낮다"고 설명했다.

김근우는 1월 15일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에서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퍼트 능력에 대한 보완과 약 100m 거리 이내 웨지샷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근우는 "KPGA 코리안투어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교한 쇼트게임을 해야 한다"며 "지난해 스윙 교정을 했다. 샷감도 좋아지고 실전에서 활용도 잘 됐다. 샷을 더 익숙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평균 드라이브 거리는 약 290야드 정도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근우의 2023 시즌 목표는 '우승'

과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 수상이다.

김근우는 "현재 (이)재경이 형과 함께 훈련중이다. 궁극한 것도 많이 물어보고 여러 조언도 구하고 있다"며 "(이)재경이 형처럼 데뷔 시즌에 우승도 하고 '까스텔바작 신인상(명출상)'도 차지하고 싶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2020년 '영건스 매치플레이' 우승자 자격으로 '체네시스 챔피언십'에 출전한 적이 있다. 컷타락했지만 좋은 경험이었다"며 "당시에는 '오직 기회는 한 번'이라는 조바심이 있었다. 하지만 올해는 여러 대회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차근차근 성장하고 싶다. 배운다는 자세로 임하겠지만 기회가 찾아온다면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만식/기자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도의원, 대한역도연맹 공로상 수상

'2선 대학역도연맹 회장 역임...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 인정'

차영수 도의원(의회운영위원장, 강진)이 지난달 31일 한국 역도 연맹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역도연맹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대한역도연맹(회장 최성용)은 "차 의원이 선수 육성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으로서 한국 역도 발전에 기여한 공이 커 공로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역도선수 출신인 차 의원은 2009년 세계대학선수권대회에 역도 총감독으로 출전해 장미란 선수의 세계신기록을 이끌어 냈으며, 2014년 태국 치앙마이 세계선수권대회는 단장으로 출전하여 종합 3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탁월한 지도력을 인정받아 대한역도연맹 부회장을 역임한 후 대한역도연맹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으며, 제5대·제6대 한국대학역도연맹 회장으로 연맹을 이끌었다.

이 기간 '2020년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를 강진군에 유치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로 대한민국 역도 발전에 앞장서 왔다는 평이다.

차 의원은 "역도인의 한 사람으로 대한역도연맹의 공로패 수상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체육인 출신의 정치인으로서 역도는 물론 모든 체육 종목이 더욱 발전하도록 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해명/기자



박강수 마포구청장,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 노력에 감사패 받아

박강수 마포구청장이 2월 3일 오후, 서울용강초등학교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평소 청소년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받은 것이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교육도시 조성에 힘써 온 박강수 구청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 서울용강초등학교 교직원과 학부모들이 마련했다.

특히 용강초등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박강수 구청장이 취임 후 용강초등학교를 찾아 노후된 학교 외벽과 무너진 학교 담장을 보고 우리 마포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앞장서 주셨다며 외벽도색 및 담장수리 등 즉각적인 지원을 해줬다"고 입을 모아 감사를 표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우리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마포구는 우리 아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햇볕

터 건립, 스터디카페 조성 등 다양한 정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강성원/기자

조현일 경산시장, 세계자유민주연맹 자유장 수상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행복 및 복리증진 공로



조현일 경산시장은 1일 자유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시민 행복 및 복리 증진에 헌신한 공로로 세계자유민주연맹(World League Freedom Democracy)에서 수여하는 '자유장'을 수상했다. '자유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발전에 기여한 각국 저명 인사에게 시상하는 상으로,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야오잉치(Yao Eng Chi) 세계자유민주연맹 총재를 대신하여 이유경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회장이 수여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취임한 이래 자유민주주의 수호 강연회, 청소년 민주시민교육, 태극기 달기 캠페인, 어머니포순이봉사활동, 자유수호회생자 합동위령제 등 자유총연맹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시민의 입장에서 보고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과 화합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등 '시민중심 행복경산'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세계자유민주

연맹 자유장을 수상한 것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더욱 힘쓰라는 의미로 생각한다"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경산 만들기 그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초석이자 든든한 힘이 되리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현장을 발로 뛰면서 시민들의 안보 의식과 지역발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이완에 총본부를 둔 세계자유민주연맹은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인류번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민간기구로서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러시아, 한국 등 17개 집행위원국을 포함한 139개국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으며, 2001년부터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세계평화를 위해 헌신한 저명 인사를 발굴해 자유장을 수여하고 있다.

한편, 자유장 수여식에 이어 '탈북민 1호 통일학 박사'이자 각종 강연 및 교육, 유튜브, TV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수송현 고신대학교 교수를 초빙해 '최근 북한 실상과 안보통일 환경의 변화'에 대한 강연회

가 진행됐다.

강연회를 주최한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회장 이유경)는 최근 우리 사회가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일구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의지가 약화된 것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작년 10월부터 도내 23개 시군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도민과 직접 소통하는 자유·평화·번영의 장을 만들고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경북의 힘!'이라는 슬로건 아래 강연을 희망하는 도내 시·군청과 각종 단체, 기업 등에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이유경 경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연회라면 모두가 지루하고 딱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북한의 실상과 통일 방향, 그리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킨 동력인 자유의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강연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수호와 올바른 역사관·통일관을 정립하는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광삼/기자

부산시의회 김광명 의원, 국가사회 공로 인정받아...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 수상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광명 위원장(국민의힘, 남구4)은 28일 스페이스골드 월드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주최하는 '2023년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시상식에서 '국가사회공헌대상자'로 선정되어 상장을 수여받았다.

'스페이스골드 100인 효(孝) 인물대상 국가사회공헌대상'은 효 실천자와 국가사회 공로 및 문화예술체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활력을 제공하는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는 상이다.

김광명 위원장은 제8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제9대 부산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조례 제·개정과 정책제언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사회 민원 해결과 대민·봉사활동으로 시민과 국가경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구하는 활발한 활동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수상을 통하여 효의 의미와 사회 공동체 의식 실천에 대한 의미를 다시한번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됐고, 앞으로는 더욱 가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시민을 섬기는 시의원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 조성과 국가공헌을 위해 더욱 겸손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송종진/기자



연수구,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 '좋은정책상' 수상

실천적 세계시민의식 확산 '글로벌 시티즌 랩, 연수' 사업 성과 인정

연수구가 지난 26일 전국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도시 좋은 정책 어워드'에서 '좋은정책상'을 수상했다.

'좋은 정책 어워드'는 평생학습도시의 우수 정책 발굴과 사례 공유, 평생학습 현장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를 시작했다.

연수구는 '실천적 세계시민의식 확산'을 목표로 비판적 이해와 능동적 실천의 세계시민교육을 정착시키기 위한 '글로벌 시티즌 랩, 연수' 사업을 추진해왔다.

세계시민 클러스터 회원도시로서의 네트워크 활동, 구민, 공무원, 기관 등 다양한 대상으로 진행된 세계시민교육과 더불어 활동가 양성 등 다채로운 사업을 통해 연수구민의 시민성

을 향상시킨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지난해 인선 평생학습대상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연수구 평생학습도시 우수성과 학습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드높였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세계시민교육 추진으로 연수구민의 세계시민성 함양과 실천적 활동을 강화하고 세계시민교육 선도 도시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

김종남/기자

윤승오 교육위원장의 의사진행, 반면교사로 삼아

따뜻한 경북교육, 세계교육 표준으로 우뚝 솟아 나



제337회 경북도의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



세계교육 표준으로

살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살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

살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

살이 있는 교육과정 : 교육과정은 학교교육의 근간이며 학생의 삶과 무관하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되는 미래교육 : 배움을 통해 현실계 '목적'을 이루는 것을 넘어 미래에 대비하는 힘을 키워야 합니다.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공존을 구성함으로써 조화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혁신하는 교육 지원 : 성장하는 학생, 도전하는 학교를 위해 교육 지원은 혁신을 지속해야 합니다.

살이 있는 교육과정 : 살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되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



▲2023신임교육청 건부

경북도의의회는 지난 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 주재로 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 경상북도 부교육감, 국·과장, 산하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은 취재차 참석한 열린뉴스통신과 문화매일신문취재진을 소개한 후,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를 선언했다.

이에 문화매일신문 윤근수, 열린뉴스 김덕수기자는 이날 회의 진행과정을 공동취재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개회선언 후, 경북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새로 부임한 김태형 부교육감을 소개했고, 윤위원장의 특별배려로 김태형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자리에서 소개해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경북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번 보직된 교육청 신임간부 13명을 한분한분 소개 드린 후, 4개 안건중 먼저 제1안건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했고, 경북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3분의 국장들이 보고드린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다.



▲교육국장 업무보고

▲교육국장 업무보고

정책국장을 대신해 김현광 정책혁신 국장은 ▲세계교육 표준 창출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 기획 중장기 로드맵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태도와 힘을 가진 세대시민 양성, ▲공모(동아리)사업 학교 자율선택제 운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성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 안팎 온(溫)종일 행



▲윤승오의원제안설명

▲윤승오의원제안설명

복한 초등돌봄교실운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서비스 제공,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과 이해의 다문화 교육으로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 및 기초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성장 지원, ▲디지털, AI역량을 기르고 모두가 누리는 SW-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직업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위해 어학, 인성, 직무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학습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 학습 환경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방교육재정 활동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윤승오 교육위원 위원장

▲윤승오 교육위원 위원장

▲교육국 업무보고

권영근 교육국장은 ▶도농학교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방안 모색,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 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및 지원, ▶꿈과 끼를 키워주는 도전! 꿈 성취 인증제로 학생 맞춤형 인성 교육 실현,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 ▶교실을 바르게 세우는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학생 주도형 수업 정착과 과정중심 평가 확대,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행복교육으로 긍정적 인식 함양과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행복 경험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으로 합리적 경제생활 습관 및 경제적 사고력 함양, ▶따뜻함에 행복을 더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로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으로 생명보호 능력 제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따뜻한 무상 급식으로 지자체와 협력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 ▶코로나 19 대응 및 감염병 예방으로 교직원 건강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 피폐해 최소화, ▶더불어 살아가는 난치병 의료비 지원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유도,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지원을 위한 '바로지원365!', 신속대응팀 운영, ▶생명사랑 실천으로 위기 관리 체계 확립 및 행복 지수 향상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경북도교육청 사이버독학교 전격화 및 세계화 사업으로 지구촌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속 독도 외교관 육성, ▶학생상담 내실화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운영으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제공, ▶채널 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학교내 CCTV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사각지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학생안전 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 ▶산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비상상황 대응 능력 신장을 통한 교직원 및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

▲ 2023년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정책방향

살이 있는 교육과정, 힘이 있는 미래교육, 따뜻함을 더하는 학교, 혁신하는 교육 지원을 정책방향으로 하는 세계교육 표준으로 「살의 힘을 키우는 따뜻한 경북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육국 업무보고

권영근 교육국장은 ▶도농학교의 균형 성장을 지원하는 경북형 공동교육과정은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공동교육과정 운영방안 모색, ▶따뜻함으로 모두를 위한 경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다각적인 학습부진 예방-진단-지도 평가 환류시스템 구축 및 지원, ▶꿈과 끼를 키워주는 도전! 꿈 성취 인증제로 학생 맞춤형 인성 교육 실현, ▶유아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미래교육 체계 구축 및 지원, ▶교실을 바르게 세우는 '수업-평가-기록의 일체화'로 학생 주도형 수업 정착과 과정중심 평가 확대,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행복교육으로 긍정적 인식 함양과 교원 전문성 신장 및 행복 경험 지원,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경제교육으로 합리적 경제생활 습관 및 경제적 사고력 함양, ▶따뜻함에 행복을 더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로 교원의 긍지와 사명감으로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 ▶초등학생 수영실기교육으로 생명보호 능력 제고,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따뜻한 무상 급식으로 지자체와 협력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 확대, ▶코로나 19 대응 및 감염병 예방으로 교직원 건강 보호와 학생 및 교직원 피폐해 최소화, ▶더불어 살아가는 난치병 의료비 지원으로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 유도, ▶위기상황 발생시 학교 지원을 위한 '바로지원365!', 신속대응팀 운영, ▶생명사랑 실천으로 위기 관리 체계 확립 및 행복 지수 향상을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 겪는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 제공, ▶경북도교육청 사이버독학교 전격화 및 세계화 사업으로 지구촌 평화를 수호하는 세계 속 독도 외교관 육성, ▶학생상담 내실화를 위한 위(Wee)프로젝트 운영으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 제공, ▶채널 중심 안전교육으로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통해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학교내 CCTV 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 사각지대 24시간 모니터링으로 학생안전 보호 강화 시스템 구축, ▶산업 안전보건 관리 강화로 비상상황 대응 능력 신장을 통한 교직원 및 종사자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행정국 업무보고

최규태 행정국장은 ▶찾아가는 타 눈높이로 소통·공감 문화 확산으로 모두가 만족하는 경북교육 실현, ▶투명한 감사 활동으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으로 깨끗한 경북교육 실현, ▶중요기록물 전산화(DB구축)사업으로 안전한 보존·관리 체계 구축, ▶통학 차량 공동운행 활성화로 교육환경 만족도 향상, ▶교육공무원 재취업지원 서비스 실시로 퇴직후생 애설계의 기회 제공, ▶현장과 소통하는 사립학교 시설사업 지원으로 균형발전 도모와 교육수요자 만족 교육환경 조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로 재산 가치 증대 및 교육재정 확보와 교직원 복지증진 도모, ▶석면 없고 지진 걱정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만들기 안전하고 믿음직한 교육환경 조성,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그린스마트스쿨로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도할 미래인재 양성과 친환경 스마트 교육여건 구축, ▶지역과 상생하는 열린 학교 공간 학교 복합시설 조성으로 열린 학교 공간 마련, ▶교육전환-공간혁신을 구현하는 경북형 학교 공간 만들기 미래형 교육으로 전환 및 공간혁신을 통한 종합적이며 창조적인 학교로 변화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책국 업무보고

정책국장을 대신해 김현광 정책혁신 국장은 ▲세계교육 표준 창출을 위한 경북교육 정책 기획 중장기 로드맵 제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생태전환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태도와 힘을 가진 세대시민 양성, ▲공모(동아리)사업 학교 자율선택제 운영,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교육행정의 효율성으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맞춤형 방과후 학교로 사교육비 경감, ▲학교 안팎 온(溫)종일 행

복한 초등돌봄교실운영으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등 돌봄이 서비스 제공,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존과 이해의 다문화 교육으로 다문화 학생의 적응력 및 기초역량 강화,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성장 지원, ▲디지털, AI역량을 기르고 모두가 누리는 SW-AI교육으로 미래형 인재 양성, ▲직업교육 글로벌 현장학습, 세계교육의 표준으로 나아가기위해 어학, 인성, 직무 중심의 경쟁력 있는 인재 선발, ▲미래교육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해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학부모의 교육역량 강화, ▲미래를 주도하는 디지털 전환 교육 학습 환경 구축으로 스마트 학습 환경지원, ▲주민과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지방교육재정 활동의 민주성·책임성·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 조례안」은 학부모 회장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임후보자가 없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얻어 1회 추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했기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개정해 기존 학부모회 운영의 어려움을 해결함으로써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원안 심의·의결을 제안, 이에 대해 윤승오 위원장은 역시 절차대로 진행을 거쳐 원안을 가결시켰다.

이어 제4안건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했다.

최규태 행정국장은 관리계획안 제안 설명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경상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에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건물 취득건으로 영남초등학교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 50억 2,567만원 을 반영, ▲2022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의결된 '문경 교직원 연임판사 취득'건에 대해 연임판사의 위치를 문경시 마성면 외여리 769-9로 변경을 제안하면서 건물 면적은 전과 동일하게 960㎡이며 취득 재산은 변경 건 3,384만원이 절감된 38억 4,049만원인 안건에 대해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원안대로 심의·의결을 제안, 이 제안에 따라 윤승오 위원장은 절차대로 진행을 거쳐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을 가결시키면서 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가 마무리 됐다.

윤 위원장은 마무리 전 그동안 경북교육청에서 40여년 넘게 열정을 다해 온 퇴직을 앞둔 경북교육청 간부 7분을 일일이 소개하며 그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기억해주는 참 소중한 소통의 시간을 마련했다.

토론회는 나와서 그동안의 감회를 직인사의 기회를 주시어 감사하다"고 운을 뗐다, "41년간 교직생활 중, 교사 25년, 전문·관리직으로 16년을 근무해 오며 마음의 무게감으로 가슴앓이를 때 교육청으로서 무거운 1년 반의 기간이 가장 무거웠지만, 이 기간은 교육을 준비하고, 다듬고, 지원하고, 진행하고, 실행해 줘 더 나은 교육의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와 보람도 컸고, 기억에도 많이 남을 것"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교육감이하 국·과장, 등 모든 공직자들의 따뜻함으로 무사히 교육사업을 마치게 됐다"면서 "퇴직후에

도 늘 우리 경북의 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공동취재진은 이번에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33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를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다. 예전까지만 해도 도의회는 교육청과는 소통보다는 업무적인 관계가 주를 이룬 반면, 이날 진행된 회의 진행과정은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간의 상생과 화합의 소통이 어우러진 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윤승오 교육위원장의 의사진행은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만큼 매끄럽고, 참 따스함이 차고넘쳐 참석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였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 주재로 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 경상북도 부교육감, 국·과장, 산하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은 취재차 참석한 열린뉴스통신과 문화매일신문취재진을 소개한 후, 제33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최를 선언했다.

이에 문화매일신문 윤근수, 열린뉴스 김덕수기자는 이날 회의 진행과정을 공동취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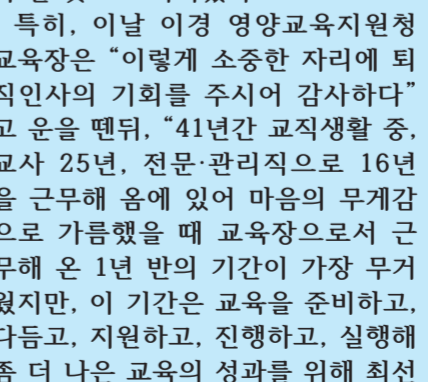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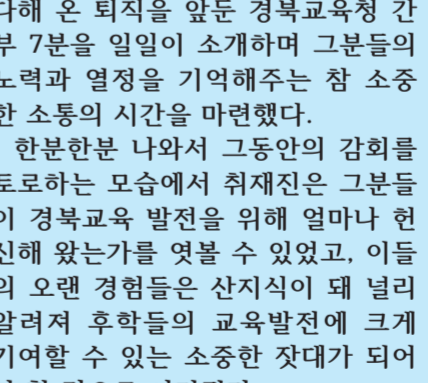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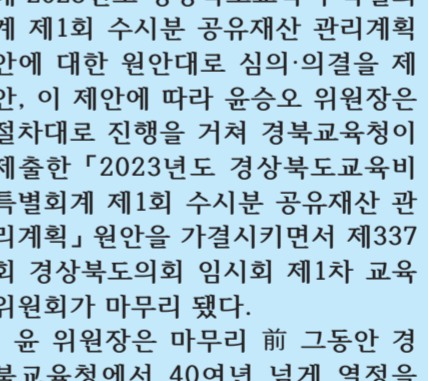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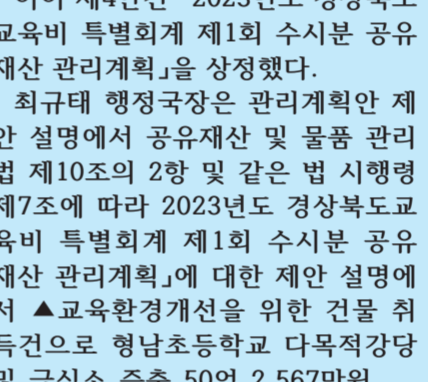
윤승오 위원장은 개회선언 후, 경북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새로 부임한 김태형 부교육감을 소개했고, 윤위원장의 특별배려로 김태형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소중한 자리에서 소개해준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경북교육이 세계 최고의 교육이 되도록 경북도의회와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 경북교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위원장은 이번 보직된 교육청 신임간부 13명을 한분한분 소개 드린 후, 4개 안건중 먼저 제1안건으로 「2023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했고, 경북도교육청 권영근 교육국장은 3분의 국장들이 보고드린 업무보고는 다음과 같다.

따뜻한 경북교육

도 늘 우리 경북의 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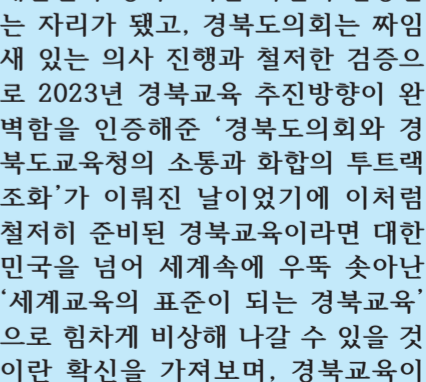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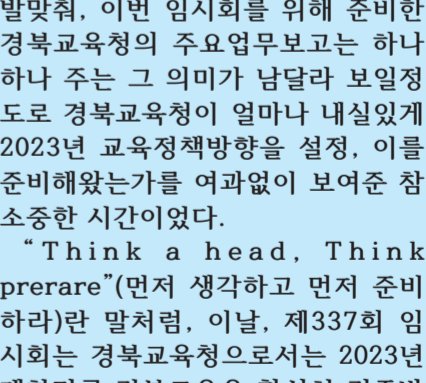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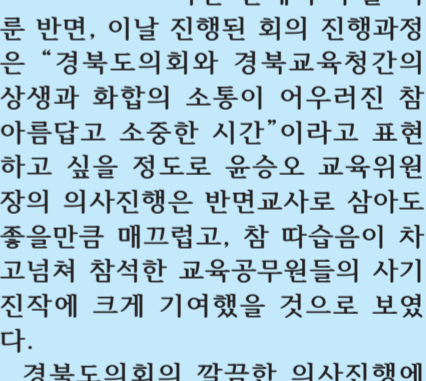
공동취재진은 이번에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33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를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다. 예전까지만 해도 도의회는 교육청과는 소통보다는 업무적인 관계가 주를 이룬 반면, 이날 진행된 회의 진행과정은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간의 상생과 화합의 소통이 어우러진 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윤승오 교육위원장의 의사진행은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만큼 매끄럽고, 참 따스함이 차고넘쳐 참석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였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 주재로 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 경상북도 부교육감, 국·과장, 산하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도 늘 우리 경북의 교육이 세계교육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소감을 밝히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았다.

공동취재진은 이번에 개최된 경북도의회 제337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의사를 진행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고 보기가 좋았다. 예전까지만 해도 도의회는 교육청과는 소통보다는 업무적인 관계가 주를 이룬 반면, 이날 진행된 회의 진행과정은 "경북도의회와 경북교육청간의 상생과 화합의 소통이 어우러진 참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을 정도로 윤승오 교육위원장의 의사진행은 반면교사로 삼아도 좋을만큼 매끄럽고, 참 따스함이 차고넘쳐 참석한 교육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였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일,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의회 윤승오 교육위원장 주재로 9명의 교육위원회 의원, 경상북도 부교육감, 국·과장, 산하기관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337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공동취재진 김덕수, 윤근수 기자>

[덕암칼럼] 한국 수어의 날

오래전 시각장애인 체험을 한 다며 모 교육기관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었다. 교통시설 이용,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 점자 읽기 등 일정표대로 체험하며 많은 청소년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행사였다. 인간의 신체는 건강할 때는 그 가치를 느낄 수 없다.

몸이 천 냥이면 눈이 구백 냥이라는 말도 있지만 오늘은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는 농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 '농인' 국어사전 그대로 옮기자면 귀에 이상이 있어서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과거에는 언어장애인 또는 그 이전에는 병어리라는 명칭으로 불려진 바 있다.

필자가 장애인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까지 칼럼으로 독자들과의 이해를 구하는 과정에 과거에는 병어리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농인이라고 표현했다가 관련 기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

개정된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 기존에는 어떤 단어였는지를 어필한 것조차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은 것이다.

가령 시집간 머느리가 귀머거리 3년, 봉사 3년, 병어리 3년이라는 속담을 전제로 어려운 시집살이가 과거에는 그렇게 표현된 바 있다고 적었다가 경고를 받은 것이다. 물론 지금은 농인, 시각장애인, 언어장애인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단어 사용의 뜻보다 일단 발언 자체를 문제 삼는 점에 대해 상심이 있는지 의문이 가는 상황이었다.

오늘의 주제인 '한국 수어의 날'은 한국 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앞서 농인이라 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며 수어는 이들이 언어를 소리 대신 표현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하며, 2016년 한국 수화 언어법이 제정되면서 한국어와 동등한 공식 언어로 법제화된 것이다.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사용자 권리를 신장하기 위해 공식 언어로 정해진 2016년 2월 3일을 기념하여 '한국 수어의 날'이 제정된 것이다.

앞서 거론하였듯 장애에 대해서는 직접 체험하고 역지사지로 당사자의 불편함이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농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을 통해 수화언어 통역 등에 대한 제도를 확충하는 등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시행되어 왔으나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청됨에 따라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4일 시행된 것이다.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수어 통역 지원체계를 구축해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 정부 정책 발표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브리핑 등에 수어 통역을 제공함으로써 농인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수어 관련 교육기관의 지원과 공공수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과 함께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법정 기념일 제정이 추진된 것이다.

관련법 제17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어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특정 단체에서 행사를 주최한 적은 없고 해마다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1주일 동안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한국수어 주간이 운영된 바 있는데 관련 토론회, 세미나, 그림엽서 및 동영상 공모전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2021년 2월 3일의 첫 기념식은 국립 한글박물관 강당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 따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된 바 있다.

당연히 올해도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지침이 해제된 만큼 많은 행사들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할 수만 있다면 언론사에서 주관하여 한국 수어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했으면 한다.

장애는 선천적 또는 사고나 상해에 의해 후천적 요인으로 겪게 되지만 당사자가 아닌 다

음에야 그 어려움을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간혹 스포츠 경기나 중요한 행사 진행이 상영될 경우, 모니터 한쪽 면에 손동작으로 말을 대신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오늘은 날이 날만큼 간단한 손동작이라도 소개하고자 한다.

국가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한국수어는 스마트폰에서 통역 기능도 없어 국민들의 작은 관심이며 급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

가령 '화장실'은 손가락바닥으로 5개를 다 펼친 상태에서 엄지와 검지를 c자로 굽히면 된다. '아름답다'는 표현은 우측 검지로 불을 켜고 손바닥으로 얼굴전체를 둥글게 돌리면 된다.

'실수'는 엄지와 검지를 동그랗게 모아 양쪽을 위·아래로 교차하면 된다. 알고 나면 쉬운 수어, 농인들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소리 내지 말고 의사소통을 해야 할 때나 급할 때 수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새로운 차원의 지적 재산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 하루 30분 정도라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하는 홈페이지의 한국 수어사전을 열어보면 누구든 무료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같은 시간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높을 수 있고 무의미하게 보낼 수도 있다.

유행가는 한번 들으면 외워진다.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몇 시간 들여다 볼 시간 중 잠시만 짬을 내어 수어를 배워본다면 발상의 전환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소득이 아닐까.

사람이 살면서 해볼 수 있는 많은 것들 중, 수어를 배워두는 것은 또 한 가지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며, 한번 배워두고 수시로 사용하면 쉽게 잊혀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필자도 사실 바쁘다는 이유로 사전을 펼쳐 수어를 익힐 여유가 없지만 남에게 권할 것이면 본인도 기본은 해야 맞는 것이다.

적어도 간단한 수어는 남과 자신을 위해 배워두길 권해 본다. 오래전 담임선생님의 말씀이 생각한다. 공부 좀 해라, 배워서 남 주니.

칼럼

고물가 지속에 한·미 금리차 확대, 취약계층 충격 최소화해 충격을

다소 진정되는가 싶던 물가가 새해 들어서도 다시 뛰어올라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전기·가스·수도요금 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공공요금발 물가 폭등을 우려하는 경고등이 켜졌다. 지난 2월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5.2% 올랐다. 이는 전월 상승률(5.0%)에 비해 0.2%포인트 확대된 것으로 지난해 5월부터 9개월째 5% 이상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연간 물가 상승률은 5.1%로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7.5%) 이후 무려 24년 만에 최고치였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3개월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물가 상승폭이 확대됐다는 점이다. 물가는 지난해 7월 6.3%까지 치솟아 정점을 찍은 뒤 완만하게 둔화하다 11월(5.0%)과 12월(5.0%) 바닥을 다졌다.

그러나 지난달 다시 고개를 들었다. 무엇보다도 전기·가스·수도요금이 전년 동월 대비 28.3%나 급등해 물가 오름세를 주도했다.

별도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0년 이후 최고치다. 연초부터 제품 가격도 줄줄이 올라 국민들의 체감 물가 충격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2월에도 5% 내외의 상승률을 예상한다."라고 했다. 문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가스값뿐 아니라 지하철·버스 등 주요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앞서 올해 1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13.1원 인상한데 이어 도시가스 요금은 36.2%, 지역난방비는 34%, 농축수산물물은 1.1%, 공업제품은 6%나 올랐다.

장기적이며 기초적(基調的)인 물가 변동을 파악하는 '근원물가지수'도 5%나 올라 전달 4.8%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2009년 2월 5.2% 이후 가장 높았다. 근원물가는 일시적 가격 변동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 물가를 제외한 수치다.

물가 상승 압박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의 영향을 받는 일부 품목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과 생활물 위주로 구성해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도 6.1% 올라 전달 5.7%보다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정부의 연간 물가 상승률 전망치(3.5%)마저 달성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긴축 정책을 통한 인플레이션과의 힘겨운 전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당연히 서민경제는 피폐하고 팍팍할 수밖에 없다.

이런 와중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 연준)는 지난 2월 1

일(현지 시각) 기준금리를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연준(Fed)이 예상대로 인플레이션 둔화에 맞춰 네 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Giant step |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 차례 '빅 스텝(Big step |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Baby step |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준(Fed) 의장은 기준금리를 연 4.5~4.75%로 0.2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한 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둔화를 뜻하는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 물가 상승 둔화)'이란 단어를 무려 15차례 썼다. 그러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은 연준(Fed)이 기준금리를 그만 올리거나 내린다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선언하기엔 너무 이르다."라고도 했다. 그는 "회의 참가자들은 올해 두어 차례(A couple of more)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라면서 "경제가 예상대로 진행한다면 올해 중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고물가·고금리 고통이 길어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이에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월 13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관에서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따라서 이번 인상한 연준(Fed)의 기준금리 연 4.50~4.75%와의 한·미 금리 격차가 최소 1.0%에서 최대 1.25%포인트까지 커진 것은 걱정스럽다. 연준(Fed) 위원들이 작년 말 전망한 올해 기준금리는 연 5.25~5.5%로 금리가 이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준이 0.2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을 두 차례 더 해야 한다.

조간간 우리나라 금리와 격차가 역대 최대인 1.5%포인트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

가뜩이나 수출 격감 탓에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경기침체도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금리 역전 현상을 오래 방치하면 해외자본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도 급락할 위험이 커진다. 이 와중에 물가까지 가파르게 뛰니 그야말로 엇친 데 덮친 격이다. 한국은행도 "물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2월에도 상승률이 5% 안팎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게다가 향후 물가 경로상 중국의 봉쇄 완화로 '리 오픈(Re-opening |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추이, 국내외 경기 흐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여전하게 크다. 이제 고금리·고물가가 금융·경제 위

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거시경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운영에 충격을 기해야 할 때다.

물론 물가를 잡으면서 경제도 살려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줄타기인데 결단코 쉽지 않은 과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문별 '컨티전시 플랜(Contingency plan | 비상계획)'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는 한편 최적의 정책 조합을 더욱 정교하게 모색하겠다."라고 했다.

미국의 긴축 기조를 좇아야 하는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 보인다.

대신 정부와 금융 당국은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야 함은 당연하다. 우량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에 몰려 흑자 부도를 내는 일은 막아야 하지만 가망 없는 한계기업(좀비기업)의 퇴출 등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

경제적 위기를 수반하는 상황 발생 시 나타나는 한계기업(좀비기업) 구조조정 등 이른바 '불황의 청산 효과'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동반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서둘러야 한다. 저성장·고물가를 극복하는 최선의 길은 규제 혁파와 신성장 동력 발굴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있음을 각별 유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1,9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채무조정·신용회복 프로그램도 더 촘촘히 짜야 할 것이다.

특히 취약 차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취약 차주를 위한 정책으로 서민금융 공급을 10조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최저 신용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대출을 100만 원까지 시행한다. 최저 신용자에 대한 특례 보증상품은 계획보다 2배나 확대해 2,800억 원을 지원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 차주이자 갭민, 상환유예 지원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 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향 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에게도 연체 90일이전이라도 원금감면 등 채무 조정 지원을 서둘러 확대해 나가야 한다.

박근종 작가·칼럼니스트(현, 서울시자치구공민이사장연합회 회장,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전소방준감, 서울소방제1방면지휘본부장, 종로·송파·관악·성북소방서장)





우리 모두의 고향 영양, 함께 살려봅시다

10만원 기부하시면

10만원+3만원 돌려드려요!

(세액공제)

(답례품)



♥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및 답례품을 제공받는 제도

♥ 혜택을 드립니다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공제 + 답례품 / 10만원 초과 :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답례품 : 기부액의 30%내 지역특산물 또는 지역화폐 등

♥ 보람이 함께합니다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과 보호,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 거주지를 넘어 서로서로 돕는 효과로 전국적인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

♥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 기부금액 : 연 500만원 한도(개인만 가능, 법인불가)
- 기부방법 : 온라인 - 고향사랑e음 접속 / 오프라인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

· 문의 : 영양군청 재무과 (☎054-680-6820~3)

고향사랑e음
<https://ilovegohyang.go.kr>